

사사건건 합의않기로 '합의'한 대한민국

국론분열, 종착역은 어디인가

갈등 극복의 길을 찾는다

사드(THAAD · 고고도 방어 미사일체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논쟁은 치열할수록 좋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논쟁을 통해 쟁점들이 검증되고 분석되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렴돼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완전한 일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도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라면 소수의견은 승복해야 한다.

사드 · 세월호 · 전국철 등 이슈마다 대립 야당 사대외교, 언론은 양비론 무책임 공세

우리 사회의 사드 논란은 민주주의의 참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다. 크고 작은 온갖 논란들이 밀도 끝도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검증된 사실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무효가 된다. 정치권도, 시민단체도 언론도 온통 의혹제기만 하지 여론이 수렴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있고, 중대한 국익이 걸려있게 마련인 외교안보 문제는 일치된 국론으로 대처해도 해쳐 나가기 힘들다. 국내 문제로 다투다가도 외교안보 문제에 직면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와 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

제를 제외하곤 사사건건 대립해왔

다. 사드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 모양이고 각종 개혁 정책마다 사생 결단식 대립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한국 정치인들의 만성적인 고질이다. 언론은 언론대로, 보수 진보로 편을 갈라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에 바쁘다. 보수언론들도 양비론 속으로 숨어버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더민주당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의 사드 반대여론을 전달하겠다고 중국으로 가 사대주의 외교 시비를 자초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의 동맹 대신

에 중국과 붙으면 된다고도 했다.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성주 주민들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과학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수궁은커녕 반대 기세를 더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치 지역으로 성주 외에 제2의 지역 선정 가능성을 비치자 반대여론은 인근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대통령의 실언도 문제지만 안보가 넘비에 흔들리는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성주가 외부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당하는 상황은 한 반도에 전쟁이 난 상황이다. 전쟁사태에서 성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명중률 100%라는 사드로 요격이라도 할 수 있지만 상주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에 공격 기지와 민간인들은 적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주가 먼저 공격당할 것을 염려해 배치를 반대한다면 겸연쩍은 일이다.

대한언론은 이같은 국론 분열을 해소할 방안을 찾고자 본회의 원로인 이종식 전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대, 대담을 마련했다. 사회는 본회 임종건 주필 (전 서울경제 사장)이 맡았다.

〈대담 내용 2~3면〉



이병대 본회 회장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종군기자 역할

본회 주최 이해복 3주기 세미나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8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이해복 회장 3주기를 맞아 '이해복과 6·25 종군기자,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종군 기자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 세미나 주제 발표는 정진석 외대 명예교수가, 토론은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정일화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진행은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고문이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이역순 전 세계일보 편집인, 이종석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최서영 전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 사장과 이해복 선생의 유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유가족은 이에 앞서 프레스센터에서 이해복 선생 3주기 기념 예배를 드렸다.

이병대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세미나 개회 인사말을 통해 "6·25전쟁 때 우리 선배들이 전쟁터에서 보여준 고귀한 기자 정신과 활동상을 되돌아보는 것이,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전쟁에서 기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편집위원
〈관련기사 10~11면〉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엇갈린 진실

"이슈는 하나인데 신문마다 다르네"

600 원로 언론인이 다시 들었다

The PEN

4·13 총선 후 전개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대안 없는 국론 분열 부채질로 국가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다. 내우외환의 비상사태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사태와 반란·반동의 정치로 국정도 마비되고 있다.



〈편집자의 편지〉

임진왜란 직전 이울곡은 이방원(태종) 이유(세조)의 연이은 쿠데타에 참여한 훈구 세력들의 집단 이익과 부패에 의한 경제파탄, 뜬 여론[浮議]에 지배되는 정치 혼란, 도의 실종, 국가기강해이 등을 국가 위망

8월11일 열린 대한언론 편집회의는 9월 신문의 아젠다를 '국론분열'로 했다. 편집국장, 보도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한 11명

(危亡)상태라고 지적하고 경장론(更張論=改革論)을 주장했으나, 선조는 채택하지 않아 임진·병자 양란을 거치고 조선은 망했다.

임진왜란 직전 뜬구름 여론의 종착점은 파멸이었다

의 편집위원들이 9월 신문의 주제 선정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자 이병대 회장이 "편집위원들의 문제의식부터 정리돼야겠다"며 '국론분열'을 생각해보자고 제의해 긴 토론이 종식됐다.

지난 4월 중견 노장 언론인 600여명이 '제3의 언론'을 내걸고 대한언론의 제2 창간을 선언했다. 원로 언론인들이 우리 시대 위기에 정면 도전하기 위해 다시 언론 제작의 치열한 싸움에 나선 것이다.

망국 조짐인 반란·반동의 정치에 의한 국론분열에 대해 김진현(문화) 이종식(동아) 송복(서울) 이종식(조선) 이성춘(한국) 김준길(서울) 정구중(동아) 회우가 펜을 들었다.

울곡은 당시 정치기강 해이를 짓내 나는 어린아이까지 국정을 시비하는 수준이라며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국가위망 사태를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경고했다.

울곡이 키 잡는 사람 없이 풍랑에 맡겨진 배와 같은 상태라고 비유했던 조선의 망국 조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가 위기에 대한 원로 언론인들의 경고를 정치인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9월호부터 사진 기자들이 뽑은 이달의 사진과 편집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사설도 실는다. 대한언론이 현장에 더 다가가기 위함이다.

박석홍 편집위원장

고위층일수록 불구대천

갈등 극복의 길을 찾는다

대담



송 복
본회 회우
연세대 명예교수



이종식
본회 회우
전 조선일보 정치부장



사회 : 임종건
본회 주필
전 서울경제사장

◆ 일시 : 2016. 8. 18 오후 3시
◆ 정리 : 임종건 본회 주필

◆ 장소 : 대한언론인회 회의실
◆ 사진 : 박문두 본회 편집위원

▲ 사회 =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국론 분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라는 안보문제가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안에 대해 두 분의 기탄 없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송복 = 한국 역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국론 분열이죠. 특히 조선 왕조 시대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한 번도 국론이 통일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립적인 세력들이 사용하는 언사 또한 극단적이고 저질적이어서 상대를 개·돼지라는 뜻의 '구체(狗彘)'라고 공격했습니다. 공부를 했다는 재상과 판서들이 그렇게 싸우며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안보와 국익의 수호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 대처해야 합

정부에서 고위관료를 지낸 분이 중 국까지 가서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청나라에 가서 조정의 일을 고자질하던 역사가 신기하게 반복하는 듯합니다.

▲ 이종식 = 민주주의와 관련해 뭔가 착각이 있는 듯합니다. 반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 또는 다양성이라는 인식이 그것입니다. 대안 없이 떠드는 것이 국론 분열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논리로 떠드는 것은 파당성이지만 다양성이 아닙니다. 반대론자들의 반대 이유가 첫째 성능이 검증된 무기가 아니다, 둘째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셋째 중국을 자극해 경제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주장에는 대안이나 분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 송 = 사드에 대한 언론 보도에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수지로 알려진 중앙일보가 조선·동

대한언론인회 가을 문화 탐방

10월 11일, 공주 마곡사·무령왕릉 갑니다

본 언론인회는 회우 여러분의 친목과 건전한 여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10월 문화 탐방을 충남 공주로 떠납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안고 있는 공주는 갑사, 무령왕릉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백제역

사관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 문경 탐방, 6월 강화 탐방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신 분을 우선 해서 모십니다. 대리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일 시 : 2016년 10월 11일 (화)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앞 출발
장 소 : 충남 공주
탐방지 : 공산성-무령왕릉-마곡사
인 원 : 120명 (버스 3대)
준비물 : 간편 복장
접 수 : 9월 26일 (월)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처 : 전화 732-4797, 4798, 팩스 730-1270
이메일 : kjc1405@hanmail.net

세계에서 이념으로 다투는 유일한 나라 싸우지 않을일로 싸우는 일 없어야

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문제에는 의견이 있어도, 큰 테두리에선 일치를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됩니다. 큰 방향에서부터 반대합니다. 광복 이후 남·북한이 갈라지는 과정이 그랬고,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과정에선 반대가 또 얼마나 거셌습니까?

지금의 사드 문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하고, 핵무기의 소형화를 이룬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이에 대비하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의 방어체계도 없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더민주당 의원이나 김대중·노무현

아와는 달리 내·외부 필진들을 통해 반대논지의 글을 많이 게재하더군요. 그런데 중앙일보의 글들에는 대안이 없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주장이 많았어요. 그중에서 한승주 전 외무장관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중국의 사드 반대 이유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처한 국제적 곤경을 한국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 중국 군부의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냐, 중국 내부적으로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할 사정이 생긴 게 아니냐고 했더군요.

3면에 계속됩니다

“다툼도 상대를 인정하며 제대로 싸워라”

2면에서 이어집니다

▲ **사회** = 비교적 분석적인 보도였다고 하겠군요. 송 교수님은 중국의 반대를 어떻게 보세요?

▲ **송** =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심하게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의아해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레이더 영역이 500km 밖에 안 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나 논리가 궁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열등의식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 **사회** =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 = 경제 보복을 하려고 하겠지요. 중국이 보복하면 한 방에 날아간다고 말한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는 절대 안 되지요. 중국의 무역액이 2조5,000억 달러가 넘는데 그중 상당액은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원·부자재, 부품, 중간재 등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보복하면 중국도 어려워지죠. 국제 정세나 경제에 관한 지식이 그렇게 박약한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지요.

▲ **이** = 사드는 장치나 설비이지 살상 무기는 아닙니다. 상대가 권총 공격 한다니 방탄조끼를 입자는 것이죠. 그것을 못 입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안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인데 그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게 했을 뿐 해결책이 아니었지요. 미국이 중국의 군사기밀을 탐지할 목적의 배치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결국 한국에 대해 ‘미국에 붙지 말라’는 협박인 셈입니다.

▲ **송**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양국 간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한국이 미국편 아니라 중국편이라 생각하다가, 한·미 관계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깊고 공고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웃음). 믿었던 상대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 **이** = 중국의 사드 반대의 목적은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더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과정에서 사드로 북·중 간의 혈맹복원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원래 중국은 한국이 3이면 북한과는 7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안보차원에서 자국 국경에 자유민주 국가를 둘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압록강 변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겠지요.

한국의 안보는 다른 나라 안보와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선 전쟁에서 져도 정권만 바뀌지 나라가 없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과 민족의 절멸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IMF 사태는 극복해서 재기했지만 안보에는 재기가 없는 것입니다. 안보에 대한 대비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 **송** = 모든 나라는 도덕공동체로 만들어집니다. 북한은 도덕과 무관하게 위폐, 밀수, 마약 등 마피아들이 하는 짓을 하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한 불량국가입니다. 중국은 이런 북한과 노선을 같이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3대 국가 이념은 사회주의·무산계급독재·공산당 영도입니다.



“안보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은 망국행위”라고 말하는 대담자들. 왼쪽부터 임종건·송복·이종식.

무현 대통령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한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나,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과 붙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 **이** = 세계에서 이념으로 다투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죠.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자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갈등의 원인으로 인종·종교·계급·이념·지역 등을 꼽는데 앞의 세 가지는 우리에게 없는 편이고, 지역과 이념 문제도 언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렇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과 복지확대와 저성장의 결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것 같지 않은 듯해 다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미숙성은 누구누가 지적하지만 한국경제 규모에서 3%대 성장은 괜찮은 성적이고, 그것을 인정한 것이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치일 겁니다. 동맹국 관계는 일일이 여론을 물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한 번 결정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해요.

▲ **이**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통 큰 정치인데 여성 대통령의 섬세함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겠지요. 제3의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가능성을 비쳐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그런 예라고 하겠지요.

▲ **사회** = 지금 시점에서 국론 분열을 끝내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 **이** = 싸우지 않을 일을 갖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싸우더라도 막말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은 바이킹 후예들이 시민으로 바뀌면서 귀족의 물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양반 사회가 시민사회로 바뀌면서 ‘상놈의 법’이 보편화한 꼴이죠. 싸울 때는 그런 법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 **사회** =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비에 유린당하는 안보 두고만 볼 것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한국정치 만성적 고질

공산당 이념과 실질을 중시한다는 이른바 ‘우홍우전(又紅又專)’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노선을 어지럽힐 수 있는 이념으로 여길 뿐입니다. 북한이 불량국가임에도 중국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 **사회** = 중국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지만 모택동을 끝으로 종신제는 끝났고, 10년 단위로 지도력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3대의 세습체제인 북한에 대해 중국이 경멸할 이유도 있지 않나요?

▲ **송** = 중국과 북한은 인권·정의·자유·평등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패권입니다. 자유민주 국가들끼리는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하지요. 그러나 패권국가는 전쟁을 우선합니다. 그런 상대를 두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사드 배치겠지요.

그런데 사드 반대세력을 볼 때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3대 혈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920년대 사회주의 혈맥, 1950년대 민주화 혈맥, 1960년대 산업화 혈맥이 그것입니다. 이중 산업화 혈맥은 보수세력, 민주화 혈맥은 민주세력이 됐고, 사회주의 혈맥은 지하와 지상을 드나들며 때론 민주화세력과 연합해서 결코 시들지 않는 세력으로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이 아니냐는 겁니다. 노

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사회적 갈등이 많기로는 터키 다음으로 한국이더군요. 또 대부분의 갈등국이 이베리아와 발칸 반도에 많았는데 같은 반도 국가로서 한국에도 DNA상의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 **사회** = 국론 분열에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송** = 일정 수준의 갈등은 사회

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사회적 갈등이 많기로는 터키 다음으로 한국이더군요. 또 대부분의 갈등국이 이베리아와 발칸 반도에 많았는데 같은 반도 국가로서 한국에도 DNA상의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본회 산악회, 장봉도 국사봉 갑니다

9월 23일 공항철도 운서역서 집합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9월 정기산행으로 섬 산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봉도 국사봉으로 갑니다. 장봉도는 인천공항철도의 개통으로 섬을 찾기가 수월해지면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산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신도시도 모도와 함께 4

개의 섬이 나란히 하고 있는 장봉도는 섬의 길이가 길고 산줄기를 따라 수없이 봉우리가 많아 장봉도(長峰島)라 이름 지어진 섬입니다. 아름다운 섬 장봉도는 산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등산 코스를 갖추고 있어 섬 산행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 **산행지** : 장봉도 국사봉(長峰島 國師峰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 **산행일시** : 2016년 9월 23일(금요일) 오전 9시 20분
- **집합장소** : 공항철도 운서(雲西)역 대합실(서울역에서 8시 28분 출발하는 인천국제공항행 승차)
- 장봉도는 운서 삼목선착장에서 페리로 40분 소요
- **회비** : 20,000원
- **준비물** : - 간식, 식수, 등산장비, 주민등록증 지참(선박 승선시 필요)
- **문의** : 이상호 회장 (010-3855-8624)
나용경 부회장 겸 총무 (010-2691-0084)

정치 **갈 길은 멀고 해는 지는데...**

의혹??? ‘구명!’ 결단만이 시간을 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시절 최측근 가신으로 변호사출신의 에드윈 미즈가 있었다. 그는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는데 앞장섰고 1980년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당선에 1등공신의 역할을 했다. 미즈는 레이건 취임 후 ‘백악관 고문’으로 장·차관과 기관장 등 2,000여개의 고위직 인선을 총괄했다.

미즈가 발탁하는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승인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워지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가 인사권과 관련해 뇌물과 고가의 귀중품을 수수하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언론과 야당인 민주당은 “미즈는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어느날 레이건은 의혹의 진부(眞否)는 하루빨리 가리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견지에서 그의 업무정지와 함께 법무부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3개월동안 미즈의 고위직 인선과정과 금융거래, 가족과 친·인척 주변 인물들을 이잡듯이 조사한 결과 “초년병 변호사시절 주차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지금까지 미납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미즈는 레이건 2기 정부서 법무장관을 지냈다. 어느 나라나 최고 통치권자는 국정운영의 실수와 사고 등과 관련해 사과하는 것을 싫어한다.

지난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2년간 재임중 시정(施政)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에 대해 한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을 했다. 수시로 ‘구한말의 어투(語套)’로 담화를 발표했고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5~6개월마다 중앙청기자단과 회견을 했으며 민정시찰을 즐겨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 등 재야시절 누구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 취임한 이후 이러한 기대는 무너져 갔다.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왜 당당히 수시로 기자회견을 갖고 활발하고 치열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는가.

이런 식의 거의 ‘불통병(不通病)’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국정운영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정치안정의 바탕인 원내과반수 의석의 힘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 1년쯤 이 법의 잘못된 점을 인정 사과하고 정치권을 설득해서 바로잡았어야 했다.

4·13 총선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의 부족과 결핍,

실정(失政), 그리고 친박계 중심의 오만한 후보공천 행태에 분노해 여소야대의 판도로 만들지 않았던가.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심판이었다. 박 대통령은 당연히 개표완료 다음날 국민 앞에 나아가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남은 임기중 공약실천과 경제회생 일자리마련 민생대책을 위해 여·야당 대표들과 거의 매일-매주 소통 대화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에 착수 했어야 했다. 국민들은 총선거에 대패한 다음날부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대오각성해 비상한 각오 아래 국정운영과 정치와 관련해 일대 쇄신하는 새로운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호응 속에 공약을 실현하고



이성춘

본회 회우
전 고려대 석좌교수

최고 통치권자는 왜
대국민 사과를 싫어하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헌정사상 한번도 사과안해

경제 등 현안을 최대한 해결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골수 친박인 이정현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친박계가 최고위원회를 석권한데에 힘을 얻은 것인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8월 16일 단행한 개각은 국면전환과 국정의 일신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이 아닌, 탕평과는 거리가 먼 소폭에다 친정체제의 무(無)변화 인사로 그쳤다. 게다가 대(對)국민 대 정치권과의 소통결핍 내지 불통은 여전하지 않은가. 여야가 조선회사사의 구조조정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와 서별관 청문회 개최를 힘들게 합의했음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최경환 전부총리와 안종범 정책수석의 증인채택 거부로 한시가 급한 추경안 처리

재야시절 누구보다 ‘국민과의 소통’ 강조했던 박 대통령
무용지물 ‘국회선진화법 제정’ 치명적 실수에 발목 잡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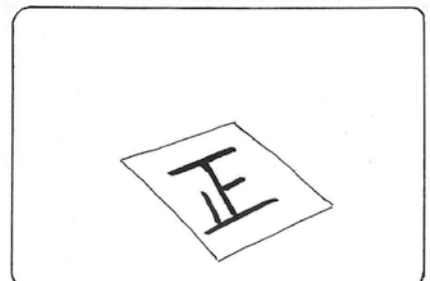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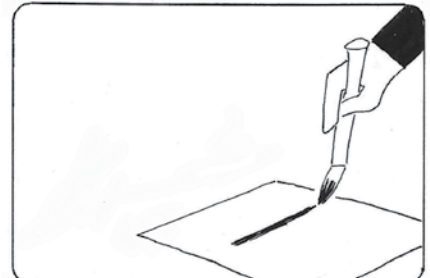
를 며칠간 표류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야당에 청문회 하나 더 주고 증인 채택을 불발시키는 것으로 낙착돼 국민을 실망케 했다. 측근들 지키기가 국가경정보다 더 중요한가.

더구나 검찰에 끈끈한 인맥을 갖고 있고 변호사 시절 석연치 않은 변론활동, 처가의 부동산거래와 아들의 의경 꽃보직에 영향력 행사여부와 관련된 의혹에 쌓여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고 방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정수석을 조사한 이석기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조사과정과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 운운하는 것 또한 석연치 않다. 일단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만큼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일반국민들은 우

오늘의 니대르

이홍우 (본회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수석을 해임 또는 업무정지 조치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과연 얼마나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갖는 게 사실이다. 이정현 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1년 6개월 임기는 매우 긴 것”이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산술적으로는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내년 1년 내내 여·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과 본선거에 집중할 것을 고려하면 국회가 정상가동 되겠는가. 따라서 대통령

이 실제 국정운영에 열중할 수 있는 기간은 올 연말까지의 4개월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나 국회 선진화법규가 발을 묶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비롯,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의 처리, 노동개혁 등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없다. 박 대통령이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다면 우 수석을 사퇴케 해 특별검사에 수사를 맡기고 서별관 청문회 증인도 모두 출석케 행한다. 아울러 여·야당 대표와 매주일 대화하고 소통하는 토크 단안을 내려야 한다.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무는데 가야할 길은 멀고도 멀다. 소통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실패만이 기다릴 뿐이다.

1997년과 2016년의 어긋난 ‘진실’ 오늘 다시 ‘국력 우수’ 평가를 의심한다

지난 8월8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21단계 중 한국을 세 번째 등급으로 평가한 뉴스는 한국을, 세계를, 나 스스로를, 진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S&P의 AA등급은 영국·프랑스와 같고 그 위엔 AA+의 미국 최고급인 AAA에는 독일·캐나다·호주가 있다.

중국·대만·칠레가 4등급이고, 일본은 5등급이다. 무디스도 한국이 3등, 피치만이 4등급이다. 그러나 세계3대 신용평가가 모두 한국보다 중국은 한 등급, 일본은 두 등급 낮다는 것을 주목하면 산업구조와 지정학적 긴장으로는 중·일 사이에서 협공당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우쭐할만하다. 여기에 프랑스·독일의 테러, 미국의 총격살인 사건들을 겹쳐보면 한국의 위상은 더욱 평화롭다.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목적과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정부와 공기업 부채상환 능력평가이지, 그 나라 경제구조나 경제력은 아니다. GDP 232%로 선진국 중 최고인 일본의 국가부채, 좀비국영기업과 그림자 금융부채로 흔들리는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 기업 부채는 아주 튼튼한 셈이다.

6월24일 Brexit 이후 외환·증권시장 모두 부정적으로 흐르던 한국은 최근 원화, 주가 강세로 돌아섰다. 돈 흐름만을 보면 한국은 안전한 선진국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이고 선진 신흥국 대부분이 우리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S&P 발표에 기획재정부 당국자가 귀를 의심하고 전문가들조차 얼떨떨해할까. 지금 뉴욕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가 중심이었던 세계금융시장은 길을 잃었다. Brexit·트럼프 현상과 같이 선진·후진국 모두 합창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질타 거부까지 겹쳐 세계경제는 불확실성, 불안정성의 극치를 보인다. 영국중앙은행은 창립 322년만에 기준금리 최저 0.25%를 기록하고 120년 미국연방은행 역시 최저금리, 일본·독일은 세계금융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보통예금금리는 연 0.001%, 최근 토요타 자동차금융회사가 발행한 3년 만기 사채는 1억엔에 1000엔, 연 이율 0.001%. 발행수수료 비용 따지면 마이너스 금리이다. 일본중앙은행의 헬리콥터 돈 뿌리기에도 2월16일엔 마이너스 0.1% 금리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고, 사실상 ‘정상적’ 금리 금융정책의 폐기이다.

그런 한편에는 20년 독재 짐바브웨는 레먼 1kg에 195만 짐바베 달러, 연 인플레이율 100,000%를 기록하고 있다. 피치의 계산에 의하면 지금 명목금리 마이너스인 국채가 11조7천억 달러나 세계시장을 돌고 있다. 돌고돌아 종당에는 세금으로 손실을 매우게 된다. 정통 금융원리 재정원리의 완전한 배반이다.

이제 한국경제로 다시 넘어와 보자. 신용평가 장사를 하는 S&P, 무디스, 피치가 아니고, 세계최고 엘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 있는 IMF(국제통화기금)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전체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김진현

본회 회우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처 장관

96년 5대강국 선언했는데
97년 노숙자가 일상풍경

2016년 ‘한국은 역풍’ IMF진단
‘경제만 잘되면...’ 미신 벗어나야

1997년 10월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외환위기- 이른바 ‘IMF 외환위기’ 발생 7개월 전 IMF는 상반기 세계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선진공업국(Advanced Economic)으로 격상시켰다. 바로 전 해 한국가입을 축하한 OECD는 3년 뒤 2000년 G7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냈다. 더 극적인 것은 그보다 1년5개월 전 1996년 5월16일 김영삼 대통령의 5대강국 선언이다.

“우리는 큰 나라가 됐다. APEC(亞太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머지않아 OECD에도 가입하게 될 것이다. ... (이승만) 박사... 때는 힘이 없었다. ...오늘은 그렇지 않다. 65만 강군이 있고,

경제 제1주의가 국가발전 저해하는 제일 큰 요인 ‘실제 국력 핵심은 정치 조정·협동력’ 깨달아야

공군력·해군력도 막강하며, 강력한 현대무기를 갖고 있는 당당한 강국이다. 4강이란 말을 쓰는데, 꼭 쓰고 싶으면 우리까지 넣어서 5강이라고 하자.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 이 말을 받아 김대중·김종필도 5대 강국론을 합창했다. 그리고 1년 뒤 한국은 ‘노숙자’가 일상이 되는 풍경이 전개된다.

1997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자.

▲재정부채비율이 선진 국가들보다는 건전하나 1997년보다는 훨씬 악화됐다. ▲대기업부채는 크게 개선됐으나 대신 가계부채는 비교할 수 없이 나빠졌다. ▲재벌집중은 더 극심해졌고 늦어도 20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Hidden Champion, 건설 중견기업, 하이테크 벤처기업, 창의혁신 생태계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구조개혁 대상은 해운·조선·제철·석유화학 업종만이 아니고, 경제·산업·노동·사회·정치·외교·군사 전반, 국가 자체가 되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울산 포항 부산 거제 통영 목포에서 어떤 사태가 그리고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중국-북한과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한국편이었다. 92년 수교 당시 12억 중국의 GDP는 4천5백만 한국과 같은 수준(5,500억 달러)이었다. 2000년 한·중 관계에서 한국이 중국과 경제력에서 대등했던 기록은 다시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92~95년, 200~400만 아사설이 떠돌았다. 이제 중국은 세계2위 GDP, 세계최대 무역대국으로 부상했고, 북한은 한국을 제치고 멀리 일본·미국을 겨누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강성군사대국’으로 변질됐다. ▲1990년대에 비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 내부의 결속력 파괴에 있다. 정치적 외교안보 대응능력의 결정적 약화, 신뢰 연대의 상실, 세대간·계층간 그리고 역사해석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갈등의 극심화, 국가공동화에 있다.

IMF가 1997년과 같이 또 한 번 실수하기를 빈다. IMF는 지난 8월12일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비우호적 인구구조변화,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의 취약점, 노동시장 왜곡, 낮은 생산성, 제한적 사회안정망, 높은 가계부채 등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은 60년대 이래 너무 오랫동안 경제 제일주의에 함몰되어 왔다.

안보보다, 정의 공정의 가치보다, 연대와 통합의 가치보다, 경제만 잘되면 정치도 민주화도 노사관계도 교육도 복지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미신이 너무 오랫동안 짓눌렸다. 그리하여 경제력 돈 권력이 나라의 정치·사법·관료·교육·언론·문화·체육... 공공영역까지 포획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 그 결과로서의 사회해체와 세계적·문명사적 현상으로서 양극화, 중심(기득권)에 대한 분노(한국의 경우 헬 조선)이 겹쳐 경제 제일주의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제일 큰 원천이 되었다.

국력을 흔히 경국력(hard power)·연국력(soft power)으로 나눈다. 경국력은 군사력·기술력·자연자원·GDP, 연국력은 인력·외교력·정보력을 꼽는다. 이런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힘만으로는 국력이 되지 않는다. 있는 힘을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가장 결정적 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 체제와 결의(합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국력의 핵심이 정치조정력·협동력을 깨닫게 된다. 실제 국력개념에 중국은 협동력, 미국은 전략적 목적 + 국가의지가 최종결정인자로 들어가 있다.

북한·중국·일본·미국 다투기에 있어서나 신용평가 회사들의 평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이것이다. 우리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력을 올바르게 변별하고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는 것, 즉 자기 스스로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일본에 재무장 명분 주는 북한과 중국

아베는 '평화국가 70년' 벗어던졌다

해마다 8월이 되면 일본열도는 원자탄 피폭의 참담한 기억과 패전의 트라우마로 뜨겁게 끓어 오른다. 전후 71년이 되는 2016년 8월에도 지구 최초의 원폭투하지 히로시마(6일)와 나가사키(9일)에서는 「원폭의 날」 행사가 열려 「핵 폐절」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외침이 메아리쳤다.

또한 일본이 항복한 15일 도쿄의 일본 무도관에서는 올해도 정부 주최의 전몰자 추도식이 열려 반성과 부전(不戰)의 결의가 되풀이되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으로서 아키히토 일왕은 예년처럼 “깊은 반성”을 표명하고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구중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동서대 석좌교수



아베 수상 취임 후 방위비를 늘려 나가는 일본. 사진은 육상자위대 전차행렬.

일본 정치의 실권자인 아베 수상은 작년에 이어 「부전의 결의」를 강조했으나 아시아 각국에의 가해와 반성에 대해서는 취임 이래 4년 연속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수상은 작년 8월의 「전후 70년 담화」에서도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남의 나라 얘기 하듯이 제3인칭으로 돌려 대면서 진정한 반성의 언급을 회피했다.

일본 역대 수상의 8·15 추도식 식사는 '93년 호소카와 수상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애도」를 언급한 이래 역대 수상이 「반성」과 「애도」의 뜻을 표현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부터 「반성」과 「애도」가 8·15 추도사에서 사라졌다. (아사히 신문 2016년 8월 16일자)

상징적 존재인 일왕이 해마다 「깊은 반성」을 거듭 언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베 수상이 아시아 각국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하는 대신에 교과서 읽듯이 「부전」을 되풀이하는 8·15 추도식의 모습은 오늘날 일본 정치의 갈등 구조와 아베의 「탈 전후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베 수상은 제1차 정권 발족 이래 끈질기게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제창해 왔다. 그는 일본이 지난 70년간 지켜 온 전후 체제는 미국 등 연합국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서 일본은 이제 그 같은 전후체제로부터 벗어나서 「군대를 갖는 나라」 「전쟁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탈 전후」 노선은 일본의 정치·사회 일각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우경화세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우파 세력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아베 정권은 2014년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그 여세를 몰아 아베 정권과 연립여당은 2015년 9월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관련법제를 강행 통과시켰다.

전후 70년간 지켜온 평화국가 일본의 족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정식 군대도 갖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강한 일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헌법개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아베 신조, 「새로운 국가로」).

이 같은 아베 수상의 집단적 자위권 강행과 헌법개정 시도에 대해 미디어의 여론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집권 이후의 세 차례에 걸친 국정선거에서 집권 연립여당은 압승을 거둬 중·참 양원에서 개헌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

“과거 멍에에 발목이지 않겠다”
‘전후 레짐으로부터 탈피’ 제창센카쿠열도 주변 군사적 대치상황
군사노선 강화 촉발 구실되고 있다

보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여론의 지지세력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의 양위」를 전격 발표한 배경에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도 크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으로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아베식 정치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강한 저항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아베 수상 집권 이래 일본은 우경화 변화의 시도에 가장 큰 명분과 구실을 안겨주고 있는 원인 제공자가 북한과 중국이다. 아베 수상은 2015년 안보관련법안을 국회에 올리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과 이유로 북한의 거듭되는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위협

한의 전쟁 도발과 중국의 참전에 의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진영의 보루였던 한국을 지키는 데 앞장섰으며, 일본이 그 후방기지 역할을 하도록 육·해·공 자위대의 발족과 군수공장의 재가동을 허용했던 것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다 쓰러져 가던 북한을 도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전력도 있다. 중국이 2016년 북한의 핵 개발저지를 위한 유엔안보리제재를 거부하고 북한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한·미·일의 공동대응에 의한 결속을 불가피하게 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일본과의 안보동맹관계인 미국은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환영하면서 중국과의 대결 상태에 있는 남중국해 사태에 자위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미국을 지원하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위기적 상황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아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공약논쟁에서 경제적 보호 무역주의와 안보상의 동맹 해체 위협까지 불거지는 등 고립주의적인 아메리카니즘이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강대국이 국제적 공동체와 국가간 동맹의 약속을 간단히 저버릴 수도 있다는 불신의 시대를 연출하고 있다. 각국은 살아남기 위한 각자 도생(圖生)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있어서는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한편 일본으로서는 「탈 전후」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미국 대선에서 클

한국 안보위기가 일본의 ‘탈 전후’ 빌미 제공
군대·전쟁도 할 수 있는 ‘강한 일본’ 지향

린턴이 당선되면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에 충실하고자 군사확장의 길을 택할 수가 있다. 한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동맹 해체를 위협하면서 안보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일본은 군비강화의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핵 무장을 선택할 가능성까지 상정할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세계 4위의 군사비 지출 대국인 일본이 이웃에 있다는 사실을 정치가들은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

이른바 차기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여·야의 정치가들은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서 심각한 동아시아 위기와 이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는 일본의 발 빠른 변화를 지켜볼 겨를이 과연 있는 것일까? 8월은 패전을 겪은 일본의 트라우마 못지않게 국치의 날을 기억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새삼 역사를 되새겨야 할 무더운 계절이다.

중국, 도원결의 ‘삼국지’ 나라 아니다

대륙의 고질병 한국 길들이기

1992년 한·중 수교 직후 동아일보는 중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공동으로 공자사상(孔子思想) 연구를 위한 학술회의를 열기로 하고 그 준비를 내가 맡았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은 물론 중국 철학계에 대한 정보에 너무나 어두운 때라 불가불 고려대학교 철학과 김충렬(金忠烈) 교수를 좌장(座長)으로 초빙하여 그와 협의아래 인민일보와의 접촉을 시작했다.

김충렬 교수는 대만대학 졸업생으로 그곳 대학 교수를 역임하여 대만에 16년이나 머물렀던 정통 중국 철학자였다. 그런데 막상 학술회의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김 교수와 동행으로 베이징에 가려 하니 인민일보가 김 교수에 대한 초청장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김 교수가 이전 중국에서의 몇 차례 한·중 학술모임에 참석을 거부하며 비우호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김 교수의 말인즉 중국 측이 한국인 학자들을 불러놓고 여비는 물론 원고료도 주지 않을뿐더러 참가비란 명목으로 돈을 내라 해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관례에도 없고 경우도 없는 짓을 하면서 그들은 김 교수에 대한 거부반응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다른 학자들은 당시 중국이 가난했고 막혔던 죽(竹)의 장막이 일거에 걷히니 호기심으로 관례나 경우 따지지 않고 이에 응했다는 것이었다.

옥신각신 줄다리기 끝에 1994년 1월 나는 김 교수와 함께 베이징에 가게 됐는데 저들 중국 측 학자들의 김 교수에 대한 견제와 감정의 끈은 팽팽하게 남아 있었다. 김 교수에게 강연회나 연토회(研討會) 중 하나를 골라 하라는 것이었다. 강연회가 됐건 연토회가 됐건 저들은 김 교수와 토론을 벌여 패거리로 김 교수를 곤경에 빠지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결국 김 교수의 양보로 강연회를 하기로 하고 이튿날 강연장인 공주(孔宙)라는 공자묘(孔子廟)에 갔더니 40여명의 중국 철학계의 원로 중진들이 모여 있었다. 김 교수는 ‘21세기 중국의 전망’이란 제하의 강연을 40여분간 중국어로 진행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의외로 강연내용에 압도되는 분위기였다. 중국 학자들의 김 교수에 대한 통과의례(通過儀禮)도 싱겁게 끝났다. 아마도 김 교수의 박람회(博覽強記)와 수준 높은 강연내용에 저들은 압도됐던 것이다.

다음 순서가 휘호교환(揮毫交換)이었다. 이 역시 예정에 없던 돌출적인 행사였다. 김 교수의 연배(年輩)나 경력으로 봐서 서예에 익숙치 못하리라는 지레짐작으로 휘호를 청하면 김 교수는 필경 포기할 것이라 예측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전지에 행초서(行草書)의 대자(大字)글씨를 순식간에 써내려갔다.

나야 김 교수의 이름있는 필력(筆力)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중국 학자들의 놀라는 표정은 가히 일품이었다. 김 교수는 예상했었다는 듯이 가방 속에 낙관까지 준비해 와서 이를 광 광 찍어 주었다. 나도 한 장, 나도 한 장 청하는 바람에 김 교수는 전지 7장을 한 자리에서 써주니 참석자들은 그의 강연보다 글씨솜씨에 더욱 감탄하고 압도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김 교수의 베이징 입성(北京入城) 통과의례는 싱겁게 끝났지만 나는 이 기회에 중국인들의 고질병인 한국 길들이기의 한 구석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얻은 셈이었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화 이후 경제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14억 인구와 5천년 역사의 문화적 축적이 일시에 세계인의 관심의 표적이 됐다. 1990년대 초엽 아직 산업화의 혜택이 배분되지



이 종 석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장지연기념회 회장

얕은채 세계석학 불러다 갑질
임진왜란 때 인줄 착각하는듯

그들은 왜 은연중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가 사대주의 옛날 주군시대 회귀하는 오만 버려야

얕은 상태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얕은 채로 세계의 지성들을 불러들였는데 이때 그들은 국제적 관행이나 상호주의를 무시하고 김 교수의 경우처럼 일방적인 갑질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후 김충렬 교수가 중국 철학계의 각별한 예우와 환대를 받으며 중국 나들이를 하는 것을 보며 나는 뻥속 깊이 뿌리박힌 중국인들의 주변국에 대한 우월의 식이라 할까, 그것이 빚나간 대국주의의 폭발견 오만임을 짐작했다.

기실 우리는 유사 이래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개의 경우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대(事大)의 예로서 섬겨왔다. 한 예로 임진왜란 때 임금이 의주까지 쫓겨가며 사직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을 때 오직 명(明)의 원군(援軍)에만 목을 매고 있다가 드디어 그들의 출병으로 나라가 위난에서 벗어나자 이후 명나라를 재조지은(再造之恩)의 상국(上國)으로 모셔 왔다. 서울의 동대문 밖, 남대문 밖에 동묘(東廟)와 남묘(南廟)를 세우고 임진왜란 때 명군의 장수들에게 제(祭)를 올리고 창덕궁 안에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명 태조와 임진왜란 때 황제인 신종(神宗),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제사를 올렸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명군(明軍)의 뒤치닥거리를 하며 우리 조정이 그들에게 당한 수모(受侮)도 함께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명군의 군량(軍糧)과 마초(馬草)가 제 때에 도착하지 않을 때 저들 명군

의 행패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당시 서해 유성룡(西厓 柳成龍)이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있을 때 명군제독(明軍提督) 이여송(李如松)이 군량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다 해서 유성룡을 무릎을 꿇리며 군법(軍法)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에 “하루는 명나라 장수들이 군량이 떨어진 명분으로 하여 제독에게 군대를 되돌리자고 청하였다. 군량이 떨어졌다는 말에 화가 난 제독은 나와 호조판서 이성중, 경기좌감사 이정형(京畿 左監司 李廷馨)을 불러 뜰 아래 꿇어앉히고는 큰소리로 힐책하며 군법(軍法)으로 처리코자 했다. 나는 분하고 서러운 마음을 참으며 계속 사죄하였는데, 나랏일이 여기까지 이른 것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다”라는 기록을 오늘의 우리 한국인들은 가슴에 새겨야 한다. 명이 망하자 명의 마지막 연호(年號)인 숭정(崇政)을 잊지 못하고 숭정후(崇政後) 몇 년이라고 사라진 명의 연호를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아무리 국교를 돈독히 하고 시장을 개방하여 2274억 달러(2015년)라는 우리의 최대교역국이 됐다해도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6·25전쟁 때에는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미명 아래 수십만명의 군대를 보내어 북한을 구해줌으로써 다 되어가던 통일의 만찬장에 재를 뿌린 섬뜩한 이웃이기도 하다.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가 6·25전쟁의 구원(舊怨)을 접어두고 상호교류를 통한 돈독한 이웃이 되어 이제 어느만큼 숙달되고 친숙한 이웃이 된 듯도 하다. 핵 개발로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과거 혈맹관계의 북한보다는 내심 우리에게 더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작년 초가을 저들의 전승기념축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텐안문 사열대에 섰을 때 그동안 공들여

온 한·중 관계의 성과에 만족해하던 우리 국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적이고 다층적(多層的)인 오늘의 한·중 관계가 사드 한방에 크게 흔들리는 감이 있다.

우리는 지난달 국제회의장에서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우리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보여준 앙칼진 얼굴이 중국 공산당 영도하의 중국 정부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호인형(好人形) 미소, 어찌 보면 교만해 보이기도 하는 넉넉한 미소가 오늘의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정이라도 되는 듯 착각해 왔다.

더 이상 중국은 5천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문화의 젖줄을 대어준 문명대국도, 도원(桃園)결의의 신의를 숭상하는 삼국지(三國志)의 나라도 아니다. 글 머리에서 말한 김충렬 교수의 경우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은연중 국제관행이나 상호주의에도 없는 예절과 순종을 요구한다. 임진왜란 이후 재조지은의 경우처럼, 이여송 제독 영내에서 무릎꿇고 읍소하던 서해 유성룡처럼 우리의 기를 꺾고 제멋대로 줄을 세우려 한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대약진운동·문화혁명 등 역사적 과오를 거쳐오며 어렵사리 이룩한 정치 경제의 패권대국일 뿐이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도무지 우리와 다른 피로 얼룩진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가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일 뿐이다. 옛날 사대(事大)와 조공(朝貢)의 시대처럼 우리에게 군림(君臨)하려 하는 오만은 더 이상 발붙일 땅이 없다.

아시아 퍼시픽대학에서 만난 두 석학의 조언

우리 ‘건국절 논란’ 필리핀서 해법을 찾다

필리핀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주목한 사람은 아시아 퍼시픽대학 경제학자 버너도 빌레가스(Bernardo M. Villegas) 박사였다. 1980년대 초 마닐라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빌레가스 박사가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난 10여년간 필리핀과 한국은 똑같이 권위주의 정권하에 있으면서도 한국은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동안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발전한 나라로 한국보다 앞섰던 필리핀이 지금 왜 아시아의 병든 자로 전락했습니까?” 하는 당돌한 질문(詰問)이었다.

한국이 유신체제를 선포한 시기에 필리핀은 오지의 공산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횡을 보장하는 계엄령 체제를 폈다. 빌레가스 박사는 한국은 70년대 재벌기업들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80년대 기술 집약 산업을 추진하여 선진국을 추월하는데 필리핀은 이시기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처남이나 마르코스의 골프 파트너에게 기간산업을 맡겨 경제적 침체에 빠졌던 필리핀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다.

빌레가스 박사는 아시아 퍼시픽 대학의 젊은 경제학자들과 함께 이 나라 재계 CEO와 외교단들을 초청하여 분기별로 필리핀 경제 현황을 분석하는 발표회를 가지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필요한 경제 정책을 건의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필리핀은 여론 조사에 앞섰던 세 명의 유력 후보자들을 따돌리고 로디 두테르테(Rody Duterte)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약 사범을 비롯한 필리핀의 범죄를 소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단순 명료한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결과였다. 빌레가스 박사는 취임을 앞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이 한국과 중국처럼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1) 대도시 교통관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2) 광케이블 설치 등을 통한 인터넷의 원활한 속도 확보, 3) 전기료 현실화, 4) 물류비용의 절감, 5) 식수 확보 등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6·25전쟁 후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한 근대화 기초 작업들을 촉구한 것이다. 빌레가스의 필리핀 근대화 추진과 아울러 부패 경고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8년의 아시아 퍼시픽 대학에서 강의중 경제학자 빌레가스 교수와 함께 인문학자 폴 두몰 교수를 만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2012년 필리핀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을 기리는 리잘상을 받고 영예로운 리잘 학자가 된 두몰 아시아 퍼시픽 대학교수의 필리핀 역사 강의를 청강하면서 필리핀 현대사를 이해하고 한국 현대사의 쟁점도 풀게 됐다.

필리핀 역사학계 그중에서도 특히 국립대학 필리핀 대학 역사학자들은 약소국가의 고질적인 민족주의 사관에 빠져 있다. 필리핀 사학계는 1898년 6월 12일 에밀리오 아گی날도 장군이 반(反)스페인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김준길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기자
아시아 퍼시픽대학 교수

현재 필리핀 건국절은
스페인 독립전쟁과 헌법 선포한 날

인문학박사 두몰 교수
“독립된 공화국 등장한 날”이 옳다



한국 근대화를 배우라고 촉구하는 버너도 빌레가스 박사.



역사논쟁 넘어 “변화된 오늘을 바라보라” 충고하는 두몰 박사.

“건국은 선포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경제학자 빌레가스, 한국경제발전 과정 주목

미서전쟁(美西戰爭)후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군도(群島)를 이양받자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했던 독립 영웅으로 초대 대통령이라고 높이 받들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대학 역사학자들이 이른바 “필리핀 혁명”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1896년 8월의 정치군사적 봉기는 15개월만에 끝난 사변(事變)이었다.

아기날도 장군의 독립 봉기는 루손 섬 서남부 파갈로그와 팜팡고스 지역에 국한했을 뿐 이었다. 루손 섬의 팡가시안과 비콜 일로까노 지역은 물론 중부 비사야 지역과 남부 민다나오 섬 등지에서는 호응도 없었다. 아기날도 장군이 1901년 미군에게 체포 됨과 동시에 이 전쟁은 끝나버렸다. 미국의 필리핀 통치는 영어 보급을 바탕으로 한 보통교육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훈련으로 시작해 1907년 시장과 지사 선거, 하원의원과 상

원의원선출, 1930년대에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다. 그 첫 대통령 선거에서 아기날도 장군은 케손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두몰 교수는 필리핀 역사학계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 미국의 필리핀 식민통치를 미국에 의한 민주주의 훈련기라고 해석한다. 미국 식민통치 기간에 시장, 주지사,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까지 선거로 뽑는 훈련을 거쳐 드디어 1946년 7월 4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필리핀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필리핀 건국일은 7월 4일이라는 것이 역사학자 두몰교수의 지론이다.

두몰교수는 아기날도 장군이 지도한 파갈로그와 팜팡고스 지역의 반(反)스페인 독립봉기를 계기로 1898년 공화국을 선포했지만 미국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훈련을 받고 1945년 5월 미군의 필리핀 탈환으로 1942년부터 3년간 일본 점령 통치에서 해방되어 1946년 7월 4일 필리핀 공화국이 건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필리핀의 건국절(建國節) 6월 12일은 1898년 6월 12일 에밀리오 아기날도 장군이 반(反)스페인 독립전쟁과 헌법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두몰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국가의 건국은 선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건국은 오랜 독립 운동의 과정을 거친 역사의 열매라는 것이다. 두몰의 필리핀 역사 해석은 16세기 바랑가이라는 일종의 군락(群落) 형태의 필리핀 사회가 400년 스페인 통치를 통한 크리스천 문명으로 개화하여 대성당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중세와 비슷한 푸에블로(pueblo)가 형성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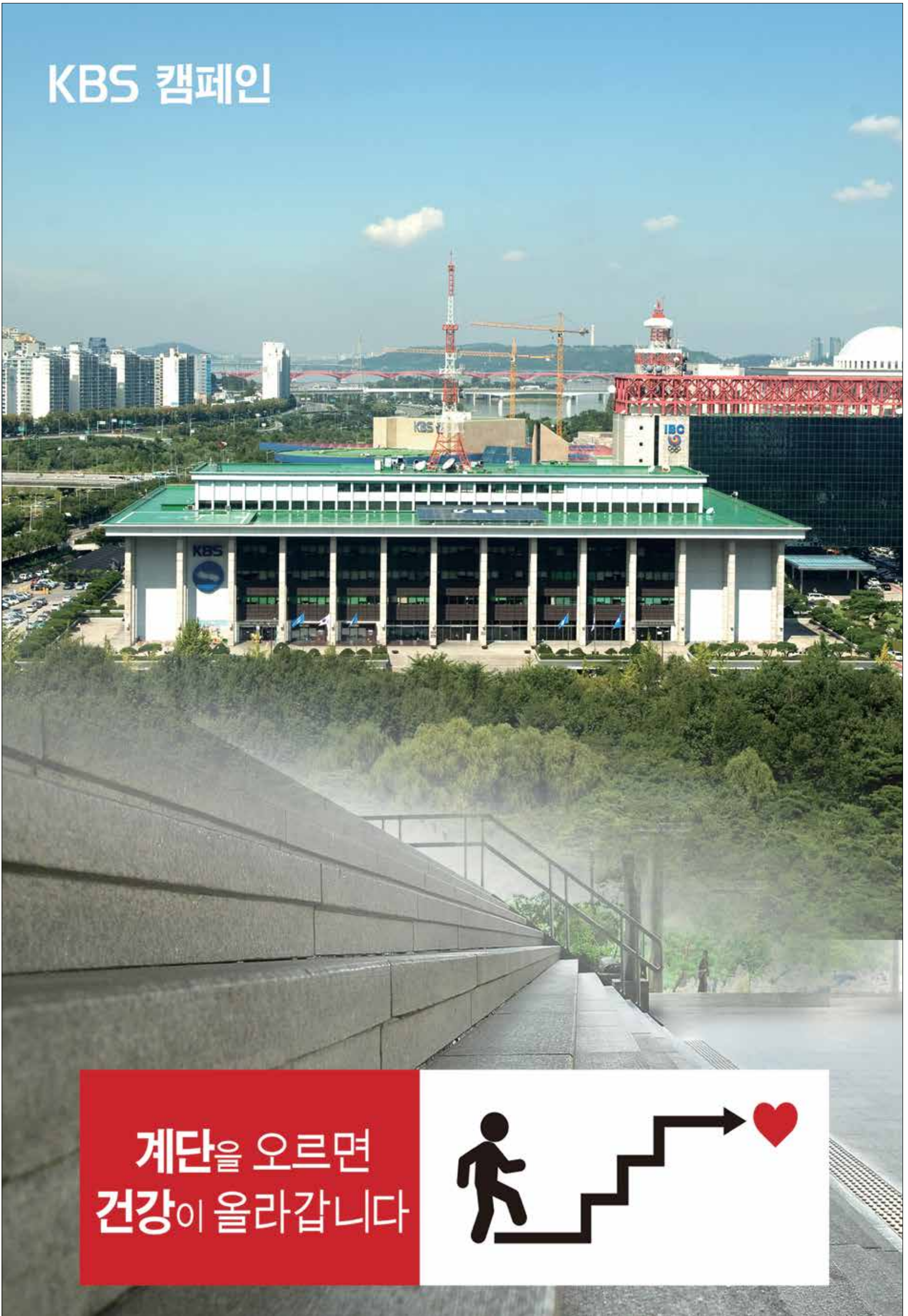
부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커뮤니티로 발전된다고 본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역마다 서로 발전 단계를 달리하는 푸에블로들이 나타나므로써 비로소 호세 리잘과 같은 교육받은 크리스천이 등장하여 필리핀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몰 교수는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통치는 스페인의 필리핀 복음화 과정으로 해석한다. 20세기 미국의 민주주의 훈련 통치를 통하여 필리핀은 대통령까지 선거로

뽑는 이른바 코먼웰스(Commonwealth)과정을 거쳐 1946년 독립된 필리핀 공화국이 등장한 7월 4일을 건국절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두몰 교수의 사관이다.

두몰 교수의 사관으로 한국현대사를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구성된 영토와 국민을 가진 국가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근대적 정치체제, 곧 공화국 수립 목표를 계승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몰 교수의 시각에 따른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다.

KBS 캠페인



계단을 오르면
건강이 올라갑니다



세미나

그들에게 펜이 총보다 강했다

포화를 뚫고 포화를 기록하며 포화를 이겨내

첫 부상 연합신문 오광수 종군기자

제주폭동(1948.4.3), 여순반란사건(1948.10.19)에 이은 지리산 빨치산 토벌과 38선 인접 지역에서의 북한군 도발에 대응하는 전투에서 종군기자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49년에는 38선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 6월 14일 연합신문 종군기자 오광수(吳廣樹)가 38선 웅진 전투 지구에서 적탄을 맞아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 오광수가 부상한 직후인 7월 처음으로 종군기자 훈련이 시작되었다. 기자 32명이 7월 7일 육군사관학교에서 1주간 훈련을 받은 후 현지 훈련에 나섰다. 제2기 종군기자는 1950년 2월 14일 육사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27일에 수료식을 가졌다.

전쟁보도 첫 번째 기사는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이 25일 정오에 발표한 담화를 모든 신문이 그대로 실은 것이다. 「서울의 민심은 평온하다는 내용이었다(동아일보, 6.26). 적이 서울에 접근 중이었던 27일자 신문은 「국군 정예 복상, 총반격전 전개」라는 제목으로 국방부의 발표를 1면 머리에 크게 실었다. 동아일보는 김진섭 특파원이 개성방면에서 보낸 기사에서 「적 주력부대 붕괴, 공비 입진 도강 수포화」를 곁들였다. 27일 오후에 마지막으로 발행한 28일자 신문도 국방부 보도과에서 27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제공권 완전 장악, 국군 의정부 탈환」을 톰으로 실었다(조선일보, 6.28).

전쟁 후 국방부가 주는 자료에 의존하여 전황을 보도했다. 종군기자 훈련을 받은 기자들이 일선에서 전황을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피해자가 되었다. 북한군은 서울을 기습 점령한 후 서울신문과 KBS 방송국을 제일 먼저 장악했다. 북한은 7월 2일부터 서울신문에서 두 개의 일간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광복 직후에 발행하던 「해방일보」와 「조선인민보」의 제호를 살린 것이다. 전쟁 중에 언론인 249명이 북으로 끌려갔고, 36명이 피살되었다(외국 기자는 17명 피살). 285명의 언론인들이 죽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납치되어 돌아오지 못한 채 생을 마쳐야 했다.

한국의 종군기자는 「종군기자증」을 지니고 가슴과 모자에 종군기자 표시를 부착했다. 이들은 군복 착용이 허용되었고, 신분상의 특혜를 받았다.

전쟁의 혼란을 틈타 각종 사기꾼과 가짜가 등장하는 가운데 종군기자를 사칭한 자들도 많았다. 서울 수복 후인 1950년 10월에는 이전의 모든 증



정진석

본회 명예회원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이혜복 특종 '평양탈환기' 본문보다 한 호 큰 활자로

사회 조창화
본회 고문

명서와 기장(紀章)을 무효화하고 정훈국 보도과에서 다시 발급했다. 10월에는 종래의 종군기자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종군기자단을 결성하기로 되어 15일 열린 발기총회에서 국방부장관 이기붕은 이혜복(경향신문) 등 21명에게 표창장, 현역 종군기자 58명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9월 28일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직후에 중앙지가 속간되었다. 제일 먼저 발행된 신문은 10월 1일자 서울신문이었다. 서울신문은 가장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속간도 타 신문에 비해 수월했다. 각 사는 종군기자를 파견하여 전황을 보도했다.

27세의 청년기자 이혜복(李蕙馥)은 종군 취재를 하면서 많은 특종을 기록했다. 처음 자유신문에 근무하다 6·25전쟁 직전에 경향신문으로 옮겼다. 그는 전쟁이 터지자 동두천으로 가서 전황을 취재하여 6월 26일자 신문에 송고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경기도 양평에 숨어 지내다가 서울이 수복되자 「종군기자증」 덕분에 군용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제일 먼저 신문 복간에 참여했다.

이혜복은 평양 탈환작전에 종군했다. 선봉에서 북진하는 국군 제5816부대와 함께 10월 19일 오후 평양 선교리에 도착했다. 그의 감격적인 「평양탈환기」는 본문보다 한 호 큰 활자로 조판되었는데, 「세계 전사상(戰史上)에 경이적 작전! 국군 정예선착 도하」라는 제목이었다.

이혜복은 평양 탈환 특종으로 사장 한창우로부터 「평양 종군 특종상」과 함께 상금 3만환을 부상으로 받았다. 이혜복은 「수도고지 혈전기 10만 적탄 뚫고 피로써 사수」(경향신문, 1952.9.19.) 등 많은 종군기를 썼다. 휴전 조인식 기사는 이혜복이 「지급전」으로 타전하여 「좌절된 한국의 통일 염원, 역사적 순간! 27일 상오 10시 7분」이 경향신문 7월 28일자에 실렸다. 이혜복은 평양 탈환과 휴전 협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취재하여 가장 먼저 보도한 기자였다.



종군기자 때의 이혜복—중앙의 안경 쓴 이, 맨右측이 조선일보 최병우, 좌에서 두 번째가 조선일보 유건호 기자.

평양에서 경향신문 발행

경향신문은 전쟁기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부산에서는 본지를 발행하고, 서울에서는 「전선판」, 평양에서는 10월 30일부터 잠시 「평양판」을 발행했다. 경향신문 평양판은 7호만에 중단됐다. 사장 방응모가 납북된 조선일보는 휴전회담 취재를 유건호·이규홍·김창현·남기영 등에게 맡겼다. 그리고 김동천(金東天)은 1952년 11월 동부전선에서 국군 2개 부대를 증설할 때 취재했다. 1952년 3월에는 최병우(崔秉宇)가 조선일보 외신부 차장으로 입사해 판문점을 출입하면서 휴전회담을 취재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던 최병우는 서부전선에서 「좌절된 적의 위력정찰, 동계 내공(來攻)은 극난, 노리 고지 확보의 의의 중대」(조선일보 1952.12.17)라는 기사를 보냈고, 1953년 4월 8일자 1면 머리에 부상 포로 교환을 위한 연락회의가 열린다는 기사를 실었다.

휴전회담 장면을 취재한 기사 「기이한 전투의 정지, 당사국 제쳐 놓은 결정서로 종막/ 한국 문제 해결에 일보 진전, 크라크 장군, 조인 후에 성명」(조선일보, 1953.7.29)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스타일이었던 짧은 쉼텐스, 간결한 묘사,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묘사한 기사였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된 지 3일째인 12일에 북한측이 갑자기 기자출입을 거부하여 이를 동안 회담이 열리지 못하다가 15일 재개하는 조건으로 기자단을 20명으로 한정해 취재를 허용하게 되었다. 1953년에도 한국 기자의 출입은 제한되었다. 휴전협정 체결 전이었던 4월, 교착상태였던 회담이 6개월만에 다시 열렸을 때 회담취재를 위해 몰려든 기자는 거의 100명에 달했다. 당시 한국 기자는 4명이었지만, 일본 기자는 11명이었다. 1952년 8월 15일에는 국방부에서 종군기자 53명에게 「종군기장」을 수여했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6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전 육군 부대에서 선발된 유공 모범 사병 13명과 이혜복 등 종군기자 26명에게 대통령 표창장과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1965년 11월 22일에는 유엔군 사령관(Dwight E. Beach 대장)이 표창장을 수여했다. 휴전협정 20년 뒤인 1973년 4월에는 종군기자 4명이 명예회원증과 공로훈장을 받았다. 한편 6·25전쟁을 취재하던 세계 각국의 외국 종군기자가 가운데 17명이 순직하였다.

월남전에는 많은 종군기자가 참가했다. 1964년 최서영(경향신문), 정연권, 윤양중(동아일보), 이규현(한국일보) 기자가 특파되어 월남의 정세를 취재하였다. 각사에서 본격적인 종군기자단을 파견한 때는 이듬해 초였다.

알림

한방침술봉사

일 시: 9월 22일(목) 오후 2시

장 소: 소공동 주민센터 4층

(시청역 7번출구 100m 스타벅스 후문 앞)

정신건강강좌

강 사: 김현우 박새(단국대 명예교수)

일 시: 9월 9일(금) 오후 3시

주 제: 치매의 예방과 치료

장 소: 프레스센터 12층 소강의실

한반도 유사시 종군기자의 역할

정리 : 이 민 희 본회 편집위원

세미나

한 줄의 진실을 위해 결코 펜을 놓지 않았다

6·25전쟁 종군기자의 경우 온갖 악조건 속에서 한 줄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전쟁발발 후 북괴군이 서울에 접근한 상황이었음에도 ‘국군 정예 복상, 총반격전 전개’, ‘적 주력부대붕괴, 공비 임진도강수포화’(동아일보), ‘제공권 완전 장악, 국군 의정부 탈환’(조선일보) 등의 오보로 국민들을 오도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피란을 가지 못해 적 치하에서 고생을 해야 했다.

당시 국방부가 보도를 완전 통제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았겠지만,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 사명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6·25전쟁에는 한국전 취재로 플리처 상을 수상한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여기자 마거릿 히긴스 등 2백여 명의 외국 종군 기자들이 활동했다. 이들은 한 줄의 전쟁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병사들과 땅바닥에서 숙식하며 활동했는데, 우리 기자들이 과연 것처럼 치열한 기자 정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장성 142명의 이들 중 35명이 사망한 것은 군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이런 군인 정신이 어느 정도 있을까?

제주폭동으로도 불리는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남로당의 무장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압 과정의 양민 피해가 부각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본질이 왜곡돼 민중항쟁으로 변질됐다. 이에 대해 우리 언론들이 노력했다면 이 사건의 왜곡 기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베트남전 취재도 많은 반성을 낳았



도 준 호

본회 회우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쟁에서의 취재 어려워도 기자정신 투철해야

다. 한편 AP는 베트남 전쟁 때 <릴라이 양민 학살 사건>을 보도했고, 베트남 양민 학살을 지휘한 소대장은 AP의 보도로 처벌받았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터에서의 취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우리나라 종군기자의 취재 보도도 단순히 전

황이나 전과 보도를 넘어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한다. 최병우 기자는 생전에 “외국의 종군기자들은 6·25전쟁 취재 중 적잖이 사망했는데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외국 종군기자는 6·25전쟁에서 17명 사망, 우리는 서울신문 한규호 기자 순직).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 치열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고 기자정신도 부족했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 맹목적인 애국심에 의존하기보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보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오보를 낸 지(1932. 2. 24) 75년 뒤(2007. 7. 14) ‘황국(皇國) 영웅 조작 보도는 오보이므로 이를 정정 한다, 이를 깊이 반성한다’는 사고(社告)를 냈다는 내용의 책(제목: 하룻밤에 읽는 일본군사사·저자: 이재우 육군대위)을 최근에 읽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932년 중국 상하이 특파원 기사를 통해 ‘중·일 전쟁 때 일본군이 재빨리 진격할 수 있도록, 일본군 공병 3명이 중국군 제19 구로군 부대 앞 철조망을 없애고 폭사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 교토에 <육탄 3용사비>가 세워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그 후 일본 육군이 자체 조사해보니, 그들 세 명이 황군(皇軍)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게 아니고, 단순한 교전 사고로 밝혀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75년만에 정정 보도를 낸 것이다.

저는 종군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 전체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 선배들의 각고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전쟁 보도를 한층 격상시키는 것이 우리 후배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한국전쟁 터졌다” UP제임스 기자 첫 타전

6·25전쟁 발발 당일 아침 UP통신 서울 특파원 Jack James는 미국 군사고문단, 미 대사관 여러 부서를 취재해 9시 50분 첫 한국전쟁 발발 기사를 날렸다.

6·25전쟁에서 첫 여자 종군기자로 등장했고, 종군기자의 역할을 제시한 헤럴드 트리뷴의 마거릿 히긴스(Marguerite Higgins)가 한국전쟁을 취재하러 온 것은 27일 오후였다. 그는 29일 수원 비행장에서 타이프라이터를 무릎에 올려놓고 기사를 쓰고 있던 중, 서울 시찰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가려던 주일 미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잡혀 강제로 도쿄로 돌아가게 됐다. 그는 맥아더의 전용기 바아탄 호에서 맥아더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의 맥아더 인터뷰 기사는 트루먼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한국전 개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히긴스는 도쿄에서 전쟁 현장 기사를 송고하고, 군용기를 몰래 타고 대전으로 돌아와, 형편없이 깨지는 한국군과, 7월 5일 미군의 죽미령 전투에서 미24사단 스미스 특전대가 거의 전멸하는 현장을 송고했다.

온 미국과 세계가 발각 뒤집혀졌다. 북한군을 농민 게릴라 수준으로 알고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군을 형편없이 격파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사가 아닐 수 없었다. 미 국방성은



정 일 화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

국방관련 전쟁기사 쓸 땐 국익부터 심사숙고

막 개발하고 있던 3.5인치 대전차포를 서둘러 한국 전선으로 보냈다. 미군 24사단장 딘 소장은 7월 20일의 대전 최후 방어전에서 3.5인치 대전차포를 보급받고 이 대전차포를 직접 쏘면서 T34를 잡은 공로로 후일 은성 무공훈장을 받았다.

히긴스가 미국 여론을 들끓게 한 또 다른 기사는 공산군에 의한 젊은 신부의 학살 장면이었다. 천안 부근에서 부상자 대열을 끌고 가던 3명의 미군 장교가 있었는데, 공산군이 이들을 덮치게 됐을 때 젊은 신부인 Kenneth Feldhoelter 대위만 스스로 남고, 의사인 Buttery 대위와 목사인 Kenneth 대위는 신부에 때밀러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신부는 목사와 의사에게 “나는 가족이 없으니 움직일 수 없는 이들 부상자를 돌보겠다. 당신네들은 도망가 다음 할 일을 하라”며 때밀러 냈다. 이들이 현장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되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공산군이 덮쳐 한 사람씩 총을 쏘아 죽였다. 히긴스는 그후 다부동 전투, 진동 전투, 낙동강 방어전, 평양 탈환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그가 있는 곳에서는 무공훈장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히긴스의 기사는 국민의 가슴을 흔들었다. 히긴스의 경험을 빌려보면 종군기자는 전선에 들어가야 하고, 멀리 바라보는 신중한 눈이 있어야 하며 국민을 전쟁에 동참시키는 감동적 기사를 써야 한다.

부정적으로 흐른 빅이슈 '우수석'

언론
말한

지난 8월 한 달에도 국내에서는 큰 이슈가 많았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상황을 언론에 유출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국기문란 사태라고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더 민주당 조선 국회의원 6명이 논란 속에서도 중국방문을 강행해 여·야와 보수, 진보 진영간 논쟁을 촉발시켰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망명하고 북한 해외공관 자금을 총괄하는 유럽 총국장이 잠적했다.

무엇보다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브라질 리우올림픽 소식이 핫 뉴스였다. 새누리당과 더불어 당 새 대표가 선출됐고 정부 일부 개각도 있었다. 이번 여름에는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돼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료 누진제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졌다.

언론의 큰 이슈는 역시 우 수석 문제였다. 그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거의 모든 언론은 우 수석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감찰관 문제가 튀어나와 사태는 더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 등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상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의 발표를 1, 3면 등에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우 수석의 사퇴문제에는 요지부동인 청와대가 이 감찰관의 감찰상황 유출을 문제삼고 수사하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문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 1면기사(‘청의 뒤를기...우병우 지키려 이석수 겨누나’)와 조선 1면 기사(‘국정을 늪으로 끌고가는 우병우’)에서는 “청와대가 우 수석을 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대신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이 감찰관에 대해 사실상 검찰수사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와 사설에서 “우병우에 갇힌 ‘갈라파고스(고립, 폐쇄된 섬)’ 청와대, 이석수 흔들기, 우병우 구하기” 등으로 비판했다. 중앙은 ‘우병우 문제,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는 사설에서 “정치는 물 흐르듯 순리대로 하고 민심의 흐름을 타야 한다”고 했다.

동아도 사설에서 “우병우 감싸며 특별감찰관 공격한 청와대, 민심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문화·경향도 사설에서 “청와대 이 특감 공격은 본말 뒤집는 우병우 감싸기이다” “우병우 대신 감찰관 수사하라

신문시평



김 광 섭

본회 편집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부장

올림픽은 메달보다 도전에 초점 공사 망명 추측성보도 난무

한국일보, 야 의원 중국방문 1면톱 사드 후보지 변경 새국면으로

는 청와대,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태 공사 망명과 유럽 총국장 잠적 사건을 대부분의 언론이 자세히 보도했다. 태 공사의 부인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였던 오백룡 전 호위총국장 집안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도 나왔다. 태 공사는 두 아들과 탈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동아는 태 공사의 자녀가 2남1녀이며 딸이 제3국에 있다가 합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딸이 북한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녀와 함께 입국했다”까지만 확인할 뿐 자녀가 몇 명인지, 국내에는 누가 들어왔는지는 신변보호 등의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의 중요 탈북인사 신상, 확인되지 않은 부인의 출신성분, 자녀들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신변안전상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철회 투쟁위는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 후보지를 바꾸기로 의견을 모아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른 지역은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유력하다.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어느 곳에 배치해도 인근지역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대국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득과 보도에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사드 배치에서 전자파 유해 논란이 줄어든 반면 반대파는 중국의 보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핵에 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국익에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신문의 보도가 많았다.

사드 문제와 관련, 더민주당 조선의원 6명이 논란 속에 중국방문을 강행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들의 방중이 “중국의 입장만 강화하고 내부분열을 심화한다”며 반대했다. 방중 의원들은 “우리가 나라 팔러 가느냐”며 중국행을 강행했다.

조선은 ‘방중 강행 더민주의원들, ‘사드 칙서’라도 받아올 참인가’라는 사설에서 “중국이 이들 의원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 어떻게 남남갈등을 조장할지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송평인 칼럼에서 조선 인조 때 김자점 부자가 효종과 송시열이 북벌을 추진한다고 청에 밀고한 행태를 ‘더러운 사대’라고 했다.

“방중 더 민주의원들이 중국 관변 학자들의 뻔한 얘기를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납득했는지 모르겠다. 인민일보와 자매지들이 일제히 사드 배치를 극렬히 비판하는 가운데 환구시보는 더민주 조선 의원들의 방중을 1면 톱으로 보도했는데 이것도 이용해 먹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결국 사고를 친 더민주 조선 방중단’이라는 사설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정부는 북한과 혈맹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중국측이 토론과정에서 발언했다”고 한 신동근 의원(방중단 일원)의 말이 거짓으로 들렸다. 한국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을 중국에 가서 알보인 수치스러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의원외교 활발할수록 좋다. 중국, 적성국이 아니라 더민주 의원 6명 방중 아무런 제한 없다’는 기사 칼럼에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므로 중국의 각계 의견을 듣고 한·중 갈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우려를 전하는 의원 외교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리우 올림픽에 대한 보도는 역경 속에서도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적 모습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종전 올림픽 보도는 금메달을 딴 선수에만 초점을 모았으나 이번에는 메달의 색깔에 관계없이, 또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땀을 흘리고 노력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많았던 것은 다행이었다.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국 정치권은 아직도 실망스러운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부 장관과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으나 대부분의 신문들은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달의 보도사진

계란 맞는

매일신문 김영진 기자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는 제163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선정, 발표했다.

전국신문통신사 등 동 협회 회원 500여 명이 지난 7월 취재 보도

Focus

이달의

결국 국제 조롱거리된 野

더불어 민주당 조선 의원 6명의 ‘사드 방중단’의 순진한 행태이고 끝이곧대로 보면 ‘고자질’이거나 국내 반대 세력을 의식한 국 국회의원 6명이 주요 현안을 놓고 중국을 만난 것도 아니고 중국 관변학자들로부터 수치임은 물론 중국에서도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이들을 감싸고, 이들이 중국 주장의 ‘확다. [문화일보 8월10일]

訪中 의원들, 중국 뜻 증폭

사드 이슈의 핵심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 것이다. 방중 의원들이 이점을 중국 측에 않는다. 대신 곧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에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다는 느낌을 주. 외교 경험도 없는 초선들이 정부의 공개인 전 대표와 더불어 민주 지도부도 도리어 실어주었다. 앞으로 의원 6명이 중국의 뜻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8월10일]

아쉬움 남긴 야당의

외교는 중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드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뒷받이라고 한다. 전략 차원이 아니라 국익을 냉정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한국일보 8월

올림픽 축제 중계인가 응원인가

황교안 · 한민구



한 사진 작품 중에서 사진가들이 인터넷 심사를 거쳐 선정한 Spot News 부문 수상작에는 매일신문 사진부 김영진 기자가 찍은 “계란 맞는 황교안 한민구”가 뽑혔다.

사설

조선 6명의 ‘訪中 사드쇼’

중외교’가 쇼로 끝났다. 좋게 보면 초보의 한국에도 사드 반대 주장이 넘쳐난다는 식한 소영웅적 발상으로 비친다. 결국,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책임 있는 중국 고위 인사 ‘강의’만 듣고 온 셈이다. 한국의 국가적 거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더민주 지도부 성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된

커 전달하는 역할 맡은 건가

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라는 납득할 만하게 설명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등 중국 측의 협박성 발언을 증폭해 국내로 고 있다.

적 반대를 묵살하고 방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방종 의원들에게 힘을 어떻게 국내에 확대 전달하는지 지켜볼

원들의 사드 방종외교

안을 철저히 숙지해야함은 물론, 우리의 침묵이었어야 했다.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 대변하겠다는 자세로 방종을 추진했는지 11일]

올림픽은 젊음의 축제이다. 인간의 생애에서 육체의 기능이 극성기에 다달았을 때 세계 최고의 힘과 기를 다투는 경기들을 펼친다. 인간의 몸이 다다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장소이다. 이런 무대를 만들기 위한 돈과 권력은 노인들이 대지만, 실제로 뛰는 주인공은 젊은이들이다. 일생의 업적을 평가하는 명예의 전당에 20대 젊은이가 현역될 수 있는 것이 스포츠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TV와 라디오 시대, 지구의 반대편에서 전해오는 아나운서의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우리 선수가 동메달 하나를 땀을 때도 온 국민이 환호했었는데 이제는 자고나면 한국 선수가 따는 메달이 몇 개씩 누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도 TV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본다.

올림픽은 지상파 TV의 축제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중계권을 지상파 외의 매체에서는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설령 자본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지상파들이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에 감히 도전해보겠다는 시도도 하지 못한다. 올림픽 경기의 생중계는 오직 지상파에서만 볼 수 있다. 종합 편성과 뉴스 채널은 뉴스로만 소식을 전할 수 있을 뿐이다.

젊은이들이 모국의 이름으로 출전하는 올림픽은 애국심을 자극한다. 과거에 어느 아나운서는 우리 선수단을 환송하는 공항 중계에서부터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을 외쳤다. 현장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도 목이 터져라 ‘고국’과 ‘동포’를 외쳤다. 상대 선수나 팀은 쳐부셔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지기도 했다. 비난도 예사로 했고, 그것이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적어도 ‘뺨때루 아저씨’ 시절까지는 그랬었다.

우승자의 국기가 오르고 국가가 연주되면 젊은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올림픽 경기 방송은 중계인가 응원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장면이 리우에서도 연출되었다. 객관성을 잃은 멘트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 선수가 역전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하도 고향을 질러대 시청하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구기 경기에서는 점수 차가 워낙 많이 나 패색이 확연한데도 계속 “괜찮습니다”를 남발하던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끝내 한국 팀의 패배로 끝나자, 얼마간 말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아나운서는 울먹이기까지 했다. 중계방송에 성차별적 발언 등 막말까지 나왔다.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할 방송이 편파적인 것은 훈련되지 않은 해설자의 경우가 더 심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물러나면 안

방송시평



유 자 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조금만 더 버티주면 됩니다”
방송해설자인지 코치인지

올림픽에 사세 총동원 지상파 3사
방송수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해설자인지, 코치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올림픽 방송은 진화하고 있다. 과거 한국 팀 위주의 중계를 보다가 일본 위성 방송에서 세계 유수의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고루 보여주는 중계를 보며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나?”고 탄식했었는데, 리우 올림픽에서는 실현되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과 수영은 우리 선수의 입상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우사인 볼트나 마이클 펠프스 같은 세계 최고 선수들의 기량을 두루 볼 수 있었다.

두 개의 채널로 중계를 한 KBS는 각종 경기에서 뛰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의 요정들과 비치 발리볼의 비너스들을, 그리스 신화에서 막바로 뛰쳐나온 조각상과도 같은 NBA의 아폴론과 헤라클레스들을 안방에서 보았다. 축구가 온두라스에게 1대0으로 지자, 이영표 해설위원은 “한국이 선취점을 넣었다면 온두라스도 ‘침대 축구’를 하지 못했을 거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픽픽 쓰러지며 시간을 끈 상대방에 짜증은 났지만, 이영표위원의 해설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인터넷에선 “진 건 아쉽지만 국뽕(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로 국가주의를 비꼬는 말) 해설은 사양” “이영표는 팩트 폭격기”라며 이위원을 옹호했다. 이것은 10년 전 독일 월드컵 조별 리

그 마지막 경기 때와 대비된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음에도 스위스의 두 번째 골이 인정되자 어느 해설가는 “이건 사기”라며 목청을 높였고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다.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골이 맞다”고 한 신문선 해설위원은 여론의 못매를 맞고 퇴출되고 말았다. 이것이 10년이 준 변화이다.

NHK의 해설은 객관적이고 차분하며 분석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의 BBC는 미국의 마이클 존슨에게 육상의 해설을 맡겼다. 해설자의 멘트가 방해로 작용하는 종목은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리우 올림픽에서 영국과 일본의 약진과 함께 방송에서 좀더 배워야 할 부분이다. 시청자가 ‘음소거’를 누르고 싶을 정도의 중계 방송을 해셔야 되겠는가!

지상파 3사는 올림픽 중계에 사세를 총동원했다. 가상 스튜디오와 컴퓨터그래픽 등 첨단 기술을 과시했다. 선수들만 밤낮없이 땀 것이 아니다. 방송사의 기술진들도 그들의 역량을 다 쏟아낸 것이다.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를 치르고 나면 방송은 발전한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보여준 기량도 한국 방송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다.

그 덕분에 시청자들은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을 올림픽 방송을 보며 달랠 수 있었다. 지상파는 축구나 배구 같은 인기 종목들을 대부분 3사가 나란히 중계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중계 신호 소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 스타들을 기용한 해설자 경쟁처럼 펼쳐졌다. 시청자 입장에서 똑같은 중계 화면이 3개 지상파에서 나오는 것은 전파 낭비이기도 했다. 올림픽 외에 정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싶은 시청자에게는 시청권 박탈일 수도 있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시청률과 광고 수입이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 방송의 시청 패턴도 변하고 있다.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생중계 시청률은 신통찮았고, 오히려 다른 채널의 드라마 등의 시청률이 평소보다 높았다고도 한다. 기대했던 광고 수익도 특수는커녕 적자를 감수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IOC의 횡포에 대항해서 지상파 외에 종편등도 가세한 코리안 풀을 형성해 중계권료 낮추기와 분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리우 올림픽 중계방송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초저예산으로 브라질의 대자연과 역사를 재현하고, 현대 세계의 아픔인 난민들이 선수단을 이뤄 던진 메시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금메달을 놓쳤던 선수에게 성화 점화를 맡긴 휴머니티를 지켜볼 수 있었던 것도 미항(美港) 리우의 풍광과 함께 TV가 우리에게 준 한 여름밤의 꿈이었다.

리우올림픽 축제가 남긴 것들

‘우생순’ 전설 끝나지 않았다

리우 올림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동과 숙제를 남겼다. 지카 바이러스 등 불안 요인도 많았지만, 갈등을 봉합하며 평화의 해법을 찾는 올림픽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풍성한 화제 속에 ‘Can Do’ 정신의 긍정 메시지를 심어주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스포츠 경쟁무대가 아닌 국격(國格)과 문화수준을 가늠하고 생각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과연 올림픽 메달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단순한 챔피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터이다. 금(金) 우선주의라는 그 빛깔론도 그러하려니와 메달 경쟁의 순위를 살피면서 국격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특히 전설로 남을 승리의 기록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 승리의 감동은 바로 희열감과 만족감의 극치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올림픽 경쟁무대를 가까이 접하며 그 감동 속에 살아온 반세기의 올림픽 증인으로서 그 때마다 흘러간 역사의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꼭 40년 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양정모가 태극기 아래 첫 금메달을 따냈을 때, 가깝게는 6년 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의 피겨 여제(김연아)가 탄생한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을 때처럼 지금도 가슴이 뛰다. 리우 올림픽 피날레를 앞둔 시점에서 116년만에 올림픽에 다시 등장한 여자골프 그린의 격전을 지켜보며 환호작약했을 국민의 기쁨을 헤아릴 만하다. 그 심리적인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지, 부상을 이겨내고 골든 그랜드슬램 챔피언의 영예를 차지한 박인비의 투혼이 더욱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리우 축제 현장에는 유난히 태극기 물결이 많아 보였다. 해외 이민자로 또는 파견 지도자로 성공의 길을 닦은 한국인들이 골프·배드민턴·태권도 등 종목에서 공헌하고 있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의 하나이다. 또한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가 보여준 활·총·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다. 역시 한국인의 강점이기도 한 집중력의 승리일 것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펜싱 에페 남자 결승, 헝가리 선수에 9-13으로 지고 있던 절망의 시간 47초 사이에 무려 5점을 따내 15-14로 역전승한 박상영의 투혼은 그야말로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의 표본이었다. 6점을 쓴 뒤에도 좌절하지 않은 사격 금메달 진종오의 소감 한 마디 “대한민국 파이팅 하십시오!” 이건 어떤 주문(呪文)처럼 들린다. IMF 시절 ‘극복의 힘’을 보여준 바 있는 박세리는 이번에

감독으로 리우 그린을 뛰어다니며 박인비 등에게 무슨 마력을 심어주었는지 모른다.

레슬링 2체급 금메달을 노렸던 김현우는 팔부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동메달에 그쳤으나, 광복절 세리머니까지 준비할 만큼 자신에 넘쳐 있었다.

여기서 그는 판정 불이익에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성숙해진 한 국의 젊



이 태 영

본회 감사
평창올림픽조직위자문위원

스포츠 넘어선 태극마크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골든 그랜드슬램’
박인비 투혼빛나

국가집중지원 효과
일본·영국의 컴백 주목



리우 올림픽 양궁 여자 스타들.

‘Can Do 정신’ 긍정 메시지 국민 가슴에 전달
이제부터 평창이다...그리고 도쿄·베이징으로

은이들은 지난날과는 다른 여유를 보였다. 리듬체조 여제의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한 손연재의 소감은 “도전 과정과 결과에 만족한다. 큰 벽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활·총·칼에서 ‘집중력의 승리’

이러한 불굴의 도전정신이 곧 우리의 가능성이

다. 핸드볼에서 시작되었던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설은 끊어진 게 아니다. 비록 이번 리우 축제에서 기대가 컸던 축구, 여자배구와 함께 핸드볼·하키·탁구 등이 좌절을 겪어야 했지만, 희망은 아직도 남아 있다. 양궁 싹쓸이가 막힌다면 또 다른 금맥을 찾아낼 것이다. 특히 태권도의 분전과 견주어 충격적인 건 유도의 전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다.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주도 아래 체육 단체 비리 척결의 찬바람이 몰아친 뒤를 이어 단체통합의 회오리가 불었기 때문이다.

올림픽 메달 성적이 잘사는 나라 또는 국민행복지수와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강국, 부국들이 경쟁을 주도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영국·중국·러시아·독일 등이 항상 상위권을 형성한다. 지난 2012년 런던대회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다음의 메달 순위 5위까지 오른바 있고 동계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기록의 우등국, 모범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리우 성과는 메달 상승세가 꺾이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망일 수도 있다.

뿐더러 육상·수영·체조 등 기본 종목에서 메달리스트가 나오지 않는 현실, 특히 마라톤에서 138위라는 우리의 기록은 전국 이래 처음 보는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육상 계주에서 2위로 질주하는 모습은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며 국가차원의 집중지원을 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에 견주어 주인의식을 잃고 슬럼프에 빠진 한국 스포츠로서는 하나의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한국은 다음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보여주어야 할 입장이다. 더구나 평창에 이어 2020년 여름에는 도쿄 올림픽, 2022

년 겨울에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잇따라 열리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3룡(韓·中·日)이 경쟁하듯 같은 시대에 한데 어울려 국격을 건 올림픽 무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국민 자존심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과연 이번 리우 축제는 우리 평창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으며 그 비교우위를 증명하는 성공 아이콘은 무엇일까 숙고해볼 일이다.

브라질의 사회불안, 문화수준이 개최능력의 변수로 작용하여 전 세계 언론의 집중 포커스가 되었지만, 우리의 평창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혹시라도 북한의 엉뚱한 방해나 위협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리우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장면이 있었다. 토마스 바하 IOC 위원장이 남긴 코멘트 “위대한 몸짓”이라 했던 말, 남·북한 선수들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말한다.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북측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평창 올림픽에서 분단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올림픽 정신이 표방하는 그대로 평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역사의 동력은 무엇인가

‘Noblesse Oblige’

이 경구가 오늘날
왜 사무치게 들릴까

역사의 동력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 화두를 이 책의 첫장에서부터 마지막 271페이지까지 끈질기게 반추한다. 저자는 역사의 동력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 단언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특혜 받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특혜는 책임을 수반한다(privilege entails responsibility)’고 정의한다. 그러나 어떻게 역사의 동력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귀결점을 찾아가는 탁월한 학문적 해안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자.

우리나라는 강력한 물리력에 의



송복 교수가 '특혜와 책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한권의
책

송복 지음 **‘특혜와 책임’**

임진왜란 때 고위층은 달아나기 바빠
궁궐 방화도 왜병아닌 우리 백성들

당대 성취 졸부들 전통 뿌리 없어
지위 높을수록 희생정신 강해야



한 리더십으로 산업화를 이룬 뒤 민주화도 달성했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특별한 지도자 그리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든다 해도 안 된다. 정치의 시대가 끝나고 시대의 패러다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성장, 양극화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2백년 이상된 선진민주국가에는 존경심을 유발하고 도덕심을 높여주는 이른바 특혜를 받고 있는 상류사회(High Society)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자기희생을 하면서 위기없이 이끌고 있다. 우리 사회 상층 사람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식 없이 오늘의 그 자리가 자신이 흘린 피·땀·눈물의 대가라는 ‘철면피 같은 생각’에 젖어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 상층의 형성과정 등을 살펴보면 알게 된다.

▲우리 상층은 모두 당대에 성취한 졸부(狎富), 졸귀(狎貴)이기 때문에 전통과 뿌리가 없고(No history) ▲그들의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가 아니라 수단으로 서구의 핵심가치인 절제(Temperance), 자제(Self-restraint)가 없으며(No morality)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희생정신

이 강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No sacrifice)—영국의 ‘이튼스쿨(Eton college)’은 해마다 2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1,2차대전 때 20년간 졸업생 전체 숫자인 5천명이 전사했다. ▲서구의 상층부는 ‘경쟁은 하되 대결하지 않는다(Competition but no Confrontation)’는 경구가 모든 결정의 밑바탕이 되고 있으나 우리 고위층은 상대의 주장에 무조건 반대하며 죽기 살기로 싸운다(No solidarity) ▲선진민주사회에서는 미리 후계자를 키우나 우리사회는 자리 넘볼까봐 후계자 기피로 계승의 위기(No succession)까지 상존한다.

우리에게도 영·미 선진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보다 더 리얼하고 치열했던 옛 신라시대가 있었다.

신라는 당시 3국 중 가장 가난하고 약하며 변방이었고 국토와 인구가 적었으나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외세(唐)를 업었다고 하나, 신라 상층부가 치열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데서 그 동력을 얻었다고 본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85명 중 신라인이 무려 74%인 63명인데 비해 백제인은 고작 6%인 5명, 고구려인은 14%인 16명뿐이다. 신라의 김

유신, 김영운, 관창 등은 시대를 뛰어넘어 존경받아 마땅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가들이었다. 그런데 백제, 고구려는 어땠는가. 다산(茶山)은 ‘백제론’에서 백제인들은 부여가 점령됐는데 구경만 했고 각 군의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고구려의 경우 연개소문의 장남 남생은 아들 현생을 데리고 동생들을 죽이기 위해 당나라 군대와 함께 자기나라를 쳐부수 7백년 역사를 마감시켰다. 조선시대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반대의 사회였다.

임진왜란때 고위층들은 달아나기에 바빴고 의병들은 모두가 상층이 아닌 일반선비들이었고 궁궐을 불지른 이들도 왜병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었다.

다시 말해 역사의 동력은 사회적 희소가치인 삼권(三權) 즉 권력(power), 부(property), 위세(prestige)를 가진 상층이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를 수행할 때 발생하며 그들도 3권을 갖게 된 정당성(legitimacy)을 얻게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신분적 계급은 없으나 모두가 양반이라는 자만에 빠져있다. 서구의 근대시민의식과 우리의 양반의식은 그 기반이 개인성(Individuality)이다. 그러나 서

구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기간이 300년이 넘는 데 비해 우리는 고작 60년이다.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는 셰익스피어 등 고전들이 그들의 지적재산과 상식 그리고 언어를 더 풍요롭게 하고 있으나 우리는 조선 5백년(한문), 일제 36년(일어)이 언어의 단절로 지적(知的) 공동화 상태가 되어 버렸다. 특히 서구는 ‘부르주아지’ 즉 상공업에 종사하는 중산계급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교양과 재산이 특징이기 때문에 인격 수준이 전통만큼 높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그 예로 청문회를 들면 한 마디로 현란한 천민성의 공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비굴할 수도 수치스러운 수도 없고 교양이란 찾아 볼 수가 없다. ‘내 잘못은 없고 모두 남의 탓이다’.

이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급의 자리가 자신의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차지하게 된 자리이고 ▲나라와 국민, 공익에 대해 치열한 의식 및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이기적이고 탐욕적(맹자의 貪位慕祿:자리를 탐하고 돈을 그리워함)인데서 벗어나야 하고 ▲언어의 폭과 생각의 영역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특혜받은 사람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던져야 하고(공자의 見危授命) ▲기득권을 내려놓아 퇴임 후 〇〇파이라는 말이 더 이상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배려와 양보, 헌신을 숭선수범하는 모범인이 되어야 우리 역사의 엔진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로 저자는 끝을 맺는다. ‘특혜와 책임’은 읽을 가치가 있는 역저이다.

한편 저자는 지난 8월 25일 저녁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책 출판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대한언론인회 회우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 된 이날 강연회에서 저자는 역사의 동력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명쾌한 논리로 열강,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연에 앞서 저자의 제자들인 윤석춘(연세대 교수), 조희권(서울시 교육감), 전상인(서울대) 교수가 저자의 학문세계 등을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었다.



글: 이병대 본회 회장

인생 2막

“역사 바로세우기에 늙을 틈도 없습니다”

후배들에게 영원한 언론 보스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전 조선일보 대표이사 부사장

안병훈(78) 「기파랑」 대표는 위기에 처한 한국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인사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팔순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오도되고 있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전파하는 데 여념이 없다.

책과 강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확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富國) 대통령 박정희 바로세우기, 최근에는 통일과 나눔 운동을 하느라 늙을 틈도 없다. 그는 종북 좌파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이런 주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여생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글 : 도준호 본회 편집위원

사진 : 이철영 본회 편집위원



안병훈 이사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면 통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출판사 「기파랑」을 만든 것은 2005년. 지난 11년 동안 출판한 책은 모두 280종이다. 직원 5명의 ‘구멍가게’에서 한달에 2~3권의 책을 출판한 것이다. 대부분이 이승만과 박정희, 역사 바로세우기 관련 책들이다.

그는 이승만과 박정희 사진집, 영문판 이승만 전기(The Foundi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을 계기로 3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과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출판기념회와 강연회도 가졌다. 또 인보길(印輔吉) 뉴데일리 회장과 함께 이승만 포럼을 만들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정동 제일교회에서 이승만 바로 알리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 제일교회는 이승만이 평생 다녔던 곳이다. 작년 그가 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부터 시작한 조선일보 주관의 통일과 나눔 운동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은 모두 167만명에 이른다.

그가 하는 기파랑은 물론, 통일과 나눔운동에 처음부터 조력하고 있는 윤석홍 단국대 명예교수는 “기파랑을 만든 후 지금까지 그가 월급 한 푼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부인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도 이 출판사를 통해 여러 권의 책을 냈지만 인세 한 푼 받아간 적이 없다”면서 “통일과 나눔운동도 그가 없었다면 이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만한 성품과 탁월한 리더십이 뛰어나 후배들에게 ‘영원한 보스’로 통한다. 안 이사장을 광화문 통일과 나눔재단사무실에서 만났다.

– 출판사를 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뒤늦게 출판사를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38년 7개월 동안 봉직한 조선일보를 떠난 후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돌아와 교보문고에 들렀다

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념서적대를 둘러보니 온통 새빨강습니다. 좌파들의 책이 완전 점령한 것이지요. 큰일 났다 싶습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자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수익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 출판사 이름을 특이하게 「기파랑」으로 정한 것도 그것과 관계 있겠네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파랑은 잘 알다시피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 찬 기파랑의 주인공 아닙니까. 신라의 이상적인 화랑 중의 한 사람이지요. 저자인 충담대사는 이상적인 화랑상으로 어두운 구름을 헤치고 나와 세상을 비추는 달의 강인함, 끝간데없이 벗어나간 시냇물

천만명인데, 전체주의 독재자에 의한 학살은 그것의 5~6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죄악말고도 인민들을 걸핏하면 반동으로 몰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공개총살을 시켰습니다.

–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판할 때도 좌파들의 모략이 심했지요.

“이 책이 나온 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는 친일정부이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기술했지요.

이 되자 전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념전쟁을 시작한 것이지요. 남북경쟁에서 GDP는 44대 1, 1인당소득은 30대1로 벌어지는 등 실질적이 체제경쟁은 끝났는데도 김일성의 ‘서울 한복판 전쟁’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지요. 남북체제경쟁을 승리로 이끈 이승만과 박정희를 공격해야만 우리 체제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종북 좌파들이 두 분을 것처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분들의 공적이 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분들 덕에 잘 살고 잘 먹으면서도 계속 흠집을 내려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은 무엇입니까.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나라를 세운 것이지요. 강력한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남북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지요. 해방 후 우리나라를 세울 때 국가정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사회주의를 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14%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공산주의를 하자는 의견도 7%에 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 역사에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지요. 그가 외국에 한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20대에 쓴 『독립정신』을 보면, 주권재민,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 좌파들이 유독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뭡까요.
“김일성이 남침에 실패한 후 휴전

이승만·박정희 제대로 평가하기, 통일과 나눔운동 167만명 동참...온 국민 참여하면 통일 멀잖아

의 영원함, 그리고 겨울 찬 서리 이겨내고 늘 푸른 빛 잃지 않는 잣나무의 불변함을 그리고 있는데 이 정신을 본 받자고 한 것이지요.”

– 처음 출간한 책이 데모사이드(demoicide)라는 번역서이지요.

“출판사를 차리고 무슨 책을 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인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이 하와이대 루돌프 J. 럼멜 교수가 쓴 이 책(번역 이남규)의 출판을 권했지요.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가 멸망한 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이 땅엔 마르크스 망령이 배회하고,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 람시의 『진지전』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발할 책으로 제에격이다 싶었지요. 이 책 내용은 지금까지 전쟁으로 사망한 인류가 4

여기에 대항해 이영훈, 박효종, 차상철 교수 등이 중심이 돼 교과서 포럼이 생겼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의 건국과 발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알리는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영훈 교수에게 부탁했지요. 그런데 좌파들은 책도 나오기 전에 친일 교과서니,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유관순을 여자깡패라고 기술했다느니 온갖 험담을 늘어놓으며 방해해 했지요.

저는 이 책이 우리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한국정체성을 지키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좌파들이 유독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뭡까요.

“김일성이 남침에 실패한 후 휴전

17면에 계속됩니다

아! 불도저시장 錦丁 김현옥

탄생 90주년 기념, 서울역사박물관서 불멸의 업적 전시회

올해가 김현옥 시장이 운명을 달리한지 19년, 태어난지 90주년이다.

지난 7월1일부터 8월 21일까지 50일 동안 서울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불도저 시장 김현옥>이 전시됐다.

마침 서울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도시는 선이다.’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역사적 시대의 빛을 안겨주어 너무나 감회가 깊다.

김현옥 시장은 1926년 10월27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97년 1월 9일 서울에서 타계하여 대전 장군묘지에 안장되었다. ‘47년 육군사관학교를 제3기로 졸업하고 ‘60년 육군 제3함만사령관을 마지막으로 5·16 군사혁명을 지지하고 ‘62년 육군준장으로 예편했다. ‘62년 부산시장, ‘66년 서울시장(14대), ‘71년 내무

장관(34대), ‘81년 장안중학교 교장, ‘89년 장안제일고등학교(초대) 교장을 끝으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돌아갔다.

미망인

오정자 여사와 슬하에 3남3녀를 두고 있다. 김현옥 시장은 불도저라는 닉네임처럼 서울시내를 헐고 짓고 밤낮없이 건설에 나섰다. 재임시절 신설도로 710km, 확장도로 50km,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방사선도로, 외곽과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아현과 청계 고가도로를 비롯해 19개, 남산 1.2호 터



1969년기자협회택지 조성 기공식에 참석한 김현옥 전 서울시장(왼쪽)

널, 삼청터널, 사직터널을 개통하여 도심교통을 원활케 했다.

‘66년 여의도 개발계획을 세워 밤섬을 폭파-높이 15m, 폭 20m, 길이 7km의 여의도 일주도로인 윤중로를 건설하여 오늘의 여의도를 탄생시켰고, 광화문, 영도 지하도를 비롯한 23개의 지하도, 육교 144개를 만들었는데 지하도와 터널

은 전쟁 발발시 방공호 구실을 하도록 설계했다.

‘68년 1월20일 기자회견에 “가난한 기자들에게도 집을”이라는 김현옥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장의 응답으로 그해 3월 29일 한국기자협회 택지조성 기공식이 열렸고 그 결과 유사 이래 400세대의 기자촌이 생겼다.

지난 8월 1일 대한언론인회와 은평구청은 한국언론 120년사를 한눈에 보여줄 언론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협약하고 내년 초에 언론기념관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그는 수필 「푸른 유산」에서 두보시에 나오는 심적쌍청(心跡雙淸)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마음과 행동이 모두 청정하다’는 것이다. 참말로 그러했다. 타계 후 그 분에게 남은 것은 오래 된 집 한 채 뿐이었다. 나는 그분의 동상을 건립하여 고귀한 구국훈민(救國恤民)정신의 뜻을 새겨 후세에 본이 되어지기를 열망한다.



강승훈

본회 회우

서울언론인클럽회장

“좌파가 이승만·박정희 흠집내는건 역설적으로 두분의 공로 너무 크기때문”

16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탁월한 선각자,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해방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승만 없이 불가능했습니다.

–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도 중요한 업적이 아닙니까.

“한·미동맹은 평화의 방패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막아내고 우리가 경제발전엔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력히 반대를 했고 유엔 참전국들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전 세계가 놀란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능력이 없으면서도 ‘북진통일’을 외치면서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휴전을 성립시키려니 이승만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독재자 독재자’ 하는데, 역사상 제발로 하야한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한 것은 4·19 이후의 무질서하고 방종적인 풍토에서 언론이 만든 것이지요. 또 이승만과 정적관계에 있던 한민당과 김구세력의 작용도 있었다고 봐야지요. 6·25전쟁 중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제대로 하고 대학생들이 전선이 아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

도록 보장한 지도자를 독재자라 할 수는 없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승만대통령의 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언급했는데, 어떤 야당 지도자가 이를 두고 “얼빠진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건국은 상해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을 하는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더니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상해임시정부는 아기를 밴 단계이며 1948년 이승만 정부 출범은 출산에 해당합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하며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임시정부시절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해임정출범을 바로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 요시다 시게루, 이광요, 등소평 등 세계적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잣대가 뒤틀인가에 따라 다르지요. 박대통령을 민주주의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됩니다. 그가 5·16쿠데타를 일으키고 권위주의 정부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에게 있어서 정치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가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나

라가 세계적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일부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했다면 나라는 개판이 되고 부패가 만연해 아직도 세계 최빈국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 서거 후 우리가 정권교체 등 민주주의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박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적 토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 유신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유신이 나온 배경을 보면 동서화해 물결속에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의 닉슨이 중국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북한과 대화를 해 보니 자칫하다가 북에 먹힐 것 같은 위기감 속에 나온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요. 그때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우리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당시 북한도 위기감 속에 내각제에서 유신체제보다 훨씬 강력한 주석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김일성의 주석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유신체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하면 60년대 초 서독 함보른 광산에서 광부와 간호사들과 만나 ‘눈물바다’를 이룬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64년 박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할 당시 우리는 필리핀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서독에 돈을 빌리려 갔습니다. 갈 때 전용기가 없어 독일 민간항공기인 루

프트한자 여객기의 칸을 막아 타고 8개의 중간기착지를 거쳐 갔습니다. 함보른 광산에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광부와 간호사 앞에서 연설을 하려니 가난의 설움이 복받쳐 대통령도 울고 광부와 간호사들도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독일에서 빌린 1억5천만 마르크(4천만 달러)을 종자돈으로 하여 우리근대화의 시동을 건 것입니다.”

– 제가 대학 졸업 후 소대장으로 전방에 근무했는데 당시 전국의 산하가 황폐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기파랑에서 박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민동산을 금수강산으로’, ‘박정희 산림녹화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저자인 이경준 서울농대 교수는 처음에는 박 대통령을 몹시 싫어했는데, 미국 유학 중 외국학자들이 박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고 귀국해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우리가 지켜야 할 보수적 가치는 무엇 일까요.

“한 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 중심은 자유와 개인재산권 보호이지요. 거기에 국민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당신만 혼자 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사고시,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동승자의 사망률도 7배로 높입니다
귀찮아서 불편해서 잘 매지 않으십니까
뒷좌석 안전띠,
더이상 혼자만의 안전띠가 아닙니다

안전이 첫 번째 길이다

 한국도로공사



♣ 체험기... 본회 건강복지사업 백미 '안과'

두려움 이긴 백내장 수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노화현상과 문제점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인공관절 수술로 포도상 구균과 칸디다 균의 감염으로 고생에 고생을 거듭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으며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했다.

그러나 수술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어 수술에 대한 공포와 기대가 나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했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3년여 동안 후유증에 시달렸고 지금껏 장애4급의 후유증을 안고 살고 있다.

그 동안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불안했고 답답해 괜한 불평을 터뜨리고는 했다. 그래서 동네 안과병원을 자주 찾곤 했



정용수
본회 회우

수술 전후 GS안과에서는 걱정하는 필자에게 수술 전에 주의 사항을 잘 지키는 환자의 의무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전 후 안약 사용은 수술의 성공을 보장하는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필자의 경우 전부터 수술 후유증에 공포를 느껴 왔기에 환자의 의무수행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거듭했다. 특히 담당 간호사는 수술 후 일주일간의 주의가 특히 중요하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또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담당 의사에게 알리도록 설명했다. 특히 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경우 수술 당일에도 약을 복용해야하고 혈전 용해제(아스피린 등) 복용은 수술 4일 전 날부터 중단하고 항생제는 수술 전 날부터 (오른쪽·왼쪽)눈에 하루 4번씩 넣고 안약을 넣는 등 약물 사용

법을 설명해 주어 큰 도움이 됐다. 또 처방해주는 약을 임의로 사용 중단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 후 일주일간 주의사항은 잠잘 때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하고 양치질 할 때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부드럽게 해 주고 세안은 눈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수건으로 하고 샤워는 수압을 낮게 하여 목 아래로만 해주고 머리감기는 미용실 의자를 이용하여 뒤로 누워서 하고 염색과 사우나는 한 달 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운전과 장거리 여행은 피해주기 바란다고 주의했다.

이런 주의사항 들을 메모하면서 과거 인공관절 후유증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 환자의 의무 사항들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본회에의 믿음졌기에 추천병원 찾아가 수술전후 주의사항 지키니 광명이 왔다

다. 진단결과 백내장이란 판정을 받았으나 인공관절 수술의 후유증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수술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대한언론인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돕는다는 기사를 봤다. 그러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거듭 고민했다. 퇴직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에 대한 믿음이 컸기에 백내장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강남구 역삼동 소재 GS안과를 찾았다.

그리고 비교적 큰 고통 없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다. 특히 언론인회에서 추천한 강남구 역삼동 GS안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위 있는 안과로서 알려져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지금은 아무런 후유증이 없고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나이 팔십을 넘기니 건강에 자꾸 신경 쓰인다.

3년 전 쯤의 일이다. 눈이 침침해져서 안경점에 갔다. 안경 도수를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막상 안경점 주인의 반응이 간단치 않았다. 눈 상태가 좋지 않으니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었다. 백내장 수술 얘기도 해서 놀랐고 두렵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개인 안과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았다. 두 눈의 수술을 받았으나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냥 편하게 생활했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 참의

시간이 흘렀다. 한 번은 소화에 문제가 생겨 내과 병원을 찾았는데 두리번거리고 어리었던 모양이다. 의사가 의아해 하며 대화를 나누더니 “과거 수술 받은 안과병원에 한 번 들러보세요.” 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눈 수술을 했던 남영



김호곤
본회 회우

망막수술 후 나는 환호했다 다시 찾은 밝은 세상

동 안과에 갔다. 소견서를 써줄 터이니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었다. 대학병원 찾기는 번거롭게 생각되어 집에서 멀지 않은 부평역 앞의 한길안과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병원 내부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의 안내

와 돌봄도 친절해서 호감이 갔다. 지난 6월28일에 수술했다. 눈병이 여러 부분에 번졌으니 수술을 하자는 박영숙 전문 의사의 권고에 따랐다.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으며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망막 수술을 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린 수술이었다. 수술 받는 동안은 고통이었으나 수술 끝나자마자 환호가 찾아왔다. 간병인도 필요가 없었다. 수술 다음 날 퇴원했다. 퇴원 후 몇 차례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금은 밝고 편안하다. 침침한 눈으로 불편하게 살았던 세월이 조금은 잊을하기도 하다.

시니어 건강 리포트 ⑤4

치매 초기증상 기억력 소실보다 행동변화가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증상으로 그동안 기억력 소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으나 이 보다는 행동변화가 더 먼저이며 정확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관심을 끈다. 캐나다 켈거리 대학 호치키스 뇌 연구소(University of Calgary the Hotchkiss Brain Institute) 이스마일(Zahinoor Ismail) 교수는 지난 7월 2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알츠하이머치매 초기 진단을 위해 행동변화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마일 교수는 그동안 알츠하이머치매 초기진단에 주로 사용해온 경증인지기능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 MCI)검사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MCI는 주로 기억력과 사고력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MBI는 고령자에서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한 것으로 예를 들어 행동장애에는 전과 다른 소극적인 태도나 문제가 있을 때 움츠러들기, 분노의 표출, 지나친 근심걱정 그리고 강박행동 등이 포함된다.

그는 MBI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광영
본회 회우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평소의 성품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마일 교수 팀이 개발한 MBI를 측정하는 체크리스트는 ①한 때 좋아하던 일에 대해 흥미와 의욕 상실 ②우울증, 근심걱정,

불안 초조와 같은 증상 ③사회적 위상이나 품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 ④분노 통제를 못하는 경우 ⑤생각이 망상이나 환상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범주다. 이러한 다섯 가지 현상들이 6개월간 자주 정기적으로 나타나면 MBI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마일 교수는 고령자 중 MCI가 나타나면 매년 이중의 13%가 치매로 진행되지만 MBI가 나타나면 25%에서 치매로 진행된다고 했다. 이스마일 교수는 현재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로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으나 행동적인 문제가 나타날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주위의 변화를 통하여 대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햇빛에 예민하면 햇빛을 가려주고 증상에 따라 항우울제나 신경 안정제 등 약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우간다 Vision Trip 8박9일

유럽 정취의 캄팔라에는 거대한 슬럼만이

‘비전 트립(Vision Trip)’이라고 하니 뭔가 우아한 여행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사람들은 으레 천하의 절경이나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휴식과 재충전 등을 생각할 것이다. 아프리카 중동부의 나라 우간다로 가는 ‘비전 트립’에 그런 것은 없었다.

지난 6월 저는 컴패션코리아가 우간다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10년 전 내가 후원을 시작한 9세의 우간다 소년은 19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편지와 사진을 주고 받았으나 직접 만나서 장성한 모습도 보고, 장래의 계획도 듣고 싶었다.

후원자 20명과 2명의 인솔자로 구성돼 7월 27일 서울을 떠난 비전 트립 팀에 그렇게 동참하게 됐다. 후원자들은 저마다 제3세계 어린이 한 명 이상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중 우간다 어린이 후원자는 저를 포함한 6명이었다.

8박9일의 일정 중 아이를 만나는 것은 마지막 날 전날로 잡혀 있었다. 그에 앞서 일행은 4일 동안 4개조로 나뉘어 컴패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도 캄팔라 근교에 있는 네 군데의 어린이 센터를 매일 한 군데씩 찾아가 그곳의 교육 및 생활상을 둘러보고, 그 중 한 어린이 집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와, 저녁식사 후 호텔의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그날의 일과에 대해 토론하는 일정을 되풀이했다.

숲속에 황토색 벽돌과 기와로 지어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수도 캄팔라는 얼핏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를 연상케 했다.

그러나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거대한 슬럼이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차들은 거의가 수입 중고차였고, 그 중 승용차 화물차 할 것 없이 일제 도요다 차 일색이었다. 낡은 차들은 시꺼먼 매연을 뿜어냈고, 자동차들이 일으키는 흙먼지와 합쳐져 캄팔라 하늘을 뿌옇게 했다.

일행이 나흘 동안 방문한 16개 어린이 가정들은 거의가 그런 슬럼 안에 있었다. 두 평이 될까말까한 공간의 절반을 커튼으로 가리



캄팔라에서 만난 아테게카(가운데). 그는 큰 사업을 꿈꾸고 있다.

컴패션 코리아가 돌보는 우간다 어린이만 5000명 넘어 10년전부터 지원해온 소년은 빈곤퇴치 밀알로 성장



슬럼가의 방문가정 탁자를 덮고 있는 캄팔라 시장 선거 벽보. 현재의 시장이기도 한 벽보의 주인공 안중에 이 가난이 보일지...

고 안은 침실, 밖은 거실로 쓰면서 4~10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 거실 한 쪽에 놓인 화덕이 주방이었고, 전기는 더러 공급됐지만 수도는 없었다.

노란 물통이 100여개 줄지어 있는 마을의 샘터는 신이 이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선물일 듯했다.

한 집의 탁자 위에는 지난 3월 캄팔라 시장선거에 출마해 당선

된 현 시장의 선거벽보가 놓여 있었다. 눈이 크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얼굴이었다. 시민들의 이런 비참한 삶이 그의 안중에 있을 것인지 궁금했다.

가정방문을 하고 돌아 나오는 발길은 무거웠다.

그 집 애들보다 더 험뎠은 어린이들이 줄줄 따라오며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아이들이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1950년대 한국의 풍경이 겹쳐졌다.

이 거대한 빈곤 앞에서 어린이 한두 명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는 무력감이 엄습했지

만, 한 어린이라도 돌보는 것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라고 자위하며 애써 무력감을 달랬다.

컴패션 국제본부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170만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고, 컴패션 코리아는 그중 12만 명을 후원하고 있다. 컴패션의 12개 후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기여가 크다. 우간다만 해도 모두

8만8,000명의 어린이 중 컴패션 코리아가 돌보는 어린이만 5,000명이 넘는다.

컴패션 어린이 센터의 어린이와 길거리의 어린이 사이에는 차이가 확연했다. 센터의 어린이들은 장래의 계획을 물으면 정치인, 비행기 조종사, 의사, 간호사, 교사, 변호사 등이 되겠다고 눈동자를 반짝이며 말했다.

얼굴의 좋은 영양상태는 표정의 밝기를 나타내는 듯했다. 우간다의 모든 어린이가 컴패션 센터의 어린이처럼 되는 날 우간다는 분명 비전이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았다.

그 점에서 우간다의 8만8,000명은 이 나라의 빈곤퇴치의 밀알로서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닐 듯했다. 이미 사회에 나와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등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도 수백 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이 장차 우간다를 바꾸는 인재가 되어 달라는 것은 컴패션의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이었다.

내가 후원하는 아이 로날도 아테게카는 건장한 체구의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그는 대학을 가서 비즈니스를 배워 큰 장사꾼이 되고 싶다고 했다. 장사를 배우려면 대학 진학보다 일찍 취직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무슨 일을 하든 이웃들의 빈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들려줬다. 아테게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늘의 섭리는 오묘하기도 하다. 캄팔라에서 어렵게 만난 분이 아라전자의 조장주 사장이었다. 그분은 20년 동안 우간다에서 전자사업을 해온 분으로 우간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었다.

나는 조 사장에게 아테게카에 대한 자초지종을 말하고 내년 졸업 후 취업 문제를 상의했다.

조 사장은 졸업하거든 내게 보내라며 흔쾌히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번 여행에서 내가 찾은 가장 소중한 비전은 아테게카였다고 생각한다.

임종건 본회 주필

이 영화

인천상륙작전

모든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다. 따라서 시의성(時宜性)은 작품 승패의 중요한 요소다. 사드 배치로 남남갈등이 심화된 오늘의 한국사회에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분명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 메시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지 만 낡은 이념으로 해석되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까 라는 생각도 뒤로 돌리자. 이 영화를 본 관객은 느꼈겠지만 이념을 다룬 영화가 아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한 첩보부대와 켈로부대의 숨겨진 실화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기습 남침한 한국 전쟁의 비극도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지도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절체절명의



김 화

본회 이사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한 것은 261척의 군함에 승선한 7만5천명의 유엔군이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한 해군 첩보부대와 인천에 상주한 켈로부대의 X-RAY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실화이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1950년 9월 15일 단행된 인천 상륙작전의 비화를 영화를 통

로 숨겨진 전쟁영웅이었다.

맥아더(리암 니슨)가 결단력 있는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마에스트로라면 첩보대원과 켈로대원은 실력있는 연주자였다.

6·25전쟁이 터진 이를 후 6월 27일 맥아더 연합군 최고 사령관은 비밀리에 전선을 시찰한다. 참호 속의 국군 소년병을 발견하고 “왜 후퇴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소년병은 “상관의 후퇴명령이 없었다. 총과 실탄을 달라!”고 절규한다. 이에 감동받은 맥아더는 ‘이 전쟁을 꼭 이겨야한다’고 다짐한다.

모두가 성공을 제로라는 인천상륙작전을 강행한 맥아더에게 미 국방부에서 파견한 반덴버그 장군은 “대통령이 되려고 무리한 작전을 하느냐”고 야유했지만 맥아더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다”고 답한다.

불가능을 성공시킨 켈로부대 X-RAY 작전

위기를 단숨에 역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인천상륙작전이고, 이 작전을 성공시킨 원동력은 X-RAY 작전이다. 이 영화는 이 작전에 참여한 용사들의 활약상을 그렸다.

이재한 감독의 ‘인천상륙작전’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전쟁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용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다. 미군 합참본부가 성공률 5000분의 1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

해 세상에 알렸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존재가치는 크다.

북한군이 설치한 어뢰 배치도를 어렵게 탈취해 D-DAY 직전에 유엔군에 전달하고 팔미도 등대를 켜지 않았다면 수로가 비좁고 간만의 차이가 큰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X-RAY 작전을 성공시킨 장학수 대위(이정재)와 15명(영화에서는 8명)의 해군첩보부대와 서진철 켈로부대장(정준호)과 30명의 대원이야말

이 영화는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한국 해군첩보부대와 켈로부대의 어뢰배치도 탈취와 팔미도 등대를 켜기까지의 활약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투 묘신(Mob Sen)은 없다. 그리고 애국이나 반공도 강조하지 않는다. 왜 국군 병사들이 어머니와 아내도 버리고 목숨 바쳐 싸웠는지는 관객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작품의 평가를 떠나서 관객들이 풀리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명복을 빕니다

김양섭 회우(전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가 7월 29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김 회우는 1957년 자유신문으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은 이래 대전매일, 중도일보, 서울신문 대전 주재기자, 충남 취재부장, 주간국 선데이 서울 부장, 출판편집국 편집위원, 편집국 부국장을 지냈다. 저서로 『종가(宗家)』를 냈다.

김양섭 영전에

신우식(본회 고문)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지낸 고인이여! 100세 시대에 너무 일찍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경북 봉화 출신으로 의성 김씨 문중에 태어나 저서로 『종가(宗家)』를 남길만큼 학구적이었습니다.

실로암 의과대학을 2년만에 중퇴하고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지냈으며, 대전 주재기자, 충남 취재부장, 주간국 선데이 서울 부장, 출판편집국 편집위원 겸 부국장을 지낼만큼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고인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서울신문 친구들이 모이는 ‘二木會’(이목회)에서 총무를 맡아 타계하기까지 봉사를 한 이야기는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고인은 ‘선데이 서울’ 기자 시절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일화가 많았습니다. 이상숙(李商淑) 기사를 일선 경찰서에 내보내 ‘경찰과 뽀빠’를 매호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숙 기사를 적극 도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성 김씨’ 문중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폐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김 회우가 활짝 웃으며 일어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 회우님! 편히 가십시오.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음악정원 산책 클래식 애호가들의 쉼터

최명우의 수요 클래식

‘최명우의 수요 클래식’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음악정원을 산책하는 클래식 애호가들의 쉼터를 마련한다.

이 모임의 진행자이기도 한 최명우 해설자(문화평론가·본회 편집국장)는 클래식 동호모임에 처음 입문하는 이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서양사와 정통한 음악사를 바탕으로 요약해낸 그의 해설은 직관적이고 다정하며 유머러스하고 세밀하다. 어쩌면 지루할 수 있다가나 생소한 느낌을 받게 될는지 모르겠다는 선입관은 깨끗이 사라지고 대형 스크린과 돌비 스테레오 음향으로 어

우러지는 클래식 영상에 몰입하게 된다. 다른 어떤 음악감상 모임보다 기획이 신선하다는 평이 입소문을 타 회원이 늘고 있다.

"우수의 그림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쓰라림, 죽음, 체념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먼 세계를 향한 동경이 기초를 이루고 있

입소문 듣고 온 입문자들에게도 잔잔한 감동

는 곡"이라고 해설하는 말러 교향곡 5번도 이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현재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종



‘수요 클래식’은 음악사에 바탕한 직관적이고 명료한 해설로 클래식의 정수를 맛보게 한다.

의 가인-황진이의 대본을 써 국립극장에서 초연을 한 오페라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특히 다양하고 깊이있는 오페라세계의 제호미(醍醐味)를 맛볼 수 있다.

로 YMCA 옆 ‘문화공간-온’에서 감상회를 열고 있다. 참가비 1만원이고 카페에서 차와 식사를 대접한다.

최명우 해설자는 창작 오페라 ‘동방

글·사진: 박문두 본회 편집위원

회우동정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박동은(전 동아일보 기자)회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인 회우는 지난 8월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지역대회 대표 130여 아동이 참석하여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늦은 밤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느라 지친 아동들에게 '휴식과 놀 권리를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Travel Press 36주년 기념



소재필(전 코리아타임스 편집부 차장)회우= 소 회우가 발행인인 해외 대상 관광 전문지 <Travel Press>가 올해로 창간 36주년을 맞았다. 1980년 8월 창간한 이 잡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속의 관광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시니어과협 매거진 편집인 선임



이광영(본회 회우)=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인 이 회우는 8월 하순 창간한 회보 시니어과협 매거진의 편집인에 선임됐다. 이 협회는 지난 3월 9일 1000여명의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정계 언론계

등 과학 전문가들이 모여 창립한 과학기술 단체다. 창간호에는 창간사와 정관·회원 명단·사업계획 등이 게재됐다.

제7회 한국기업가 정신 시상식



배병휴(전 매경 전문·'경제풍월' 발행인)회우= 8월 26일 오후 5시 30분 제7회 한국기업가 정신 시상식을 한국의집 취선관에서 가졌다.

6·25 순직장군 흉상건립 추진



서진섭(전 동아일보)회우= 6·25전쟁 중 순직한 미 육군소장 브라이언트 E. 무어 군단장과 클라크 해병대중대장 등의 흉상건립을 추진,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흉상 건립 장소는 무어 군단장이 순직한 경기도 여주시 신록사 건너편 남한강변. 서 회우가 회장을 역임한 한미동맹친선협회는 서울 용산구 미군사령부 영내에 워커 미8군사령관 동상 등을 건립한 바 있다.

부인 한영옥 여사 미술개인전



홍원기(본회 고문)회우= 부인 한영옥 여사 미술 개인전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부인 한 여사는 서울미대 졸업 후 미술교사로 봉직했고 동인전 개인전으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본회 이병대 회장 6·25 종군 참전회우와 환담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은 6·25 종군기자 및 참전회우 20여 명을 초청 지난달 30일 사무실에서 언론인회의 현황을 보고한 뒤 제일 가든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사진)

이병대 회장은 대한언론인회의 원로회우들인 종군기자 및 참전회우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대한언론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원로 회우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언론가 소식

한국기자협회, 창립 52주년 기념식

한국기자협회는 창립 52주년을 맞아 8월 17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신문 온·오프라인 통합망 구축

언론사의 디지털 퍼스트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종이신문 시대에서 온라인 디지털 시대로 탈바꿈하느라 언론사들은 분주하다. 이들은 온 오프라인 통합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문 인력을 보강하며, SNS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한다. 또 드론이나 로봇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전략과 독자를 세분화하는 것을 타깃으로 삼으려 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사우회 소식



'사우회 효율적 운영' 고문단 회의

한국경제 3번째 고문단 긴급간담회가 8월9일 정오 서울광화문 한 식당에서 유인근, 김호기 전 회장과 이학주, 송충섭 고문이 참석했다. 이날 최귀조 회장은 2016년 총회결과와 사우회 전반적 운영방안 등을 보고하고, 고문단은 본회 경영상태를 최종 점검,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회원들 연회비 납부 독려와 2년 이상 회비 미납회원에겐 경조사 혜택에서 배제하고 모든 행사에도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봉사활동 사우들 특집

KBS 8월 회보에, 100세 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노후를 보람 있는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로 보내는 사우들을 특집으로 다뤘다. 창원복지관에서 2000시간 이

상 봉사한 이태진, 대구에서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에서 봉사하는 이중근, 노숙자에게 배식 봉사하는 권오철 회우 등 수십 명이 폭염에도 값진 비지땀을 흘리는 현장을 소개했다.

기형도 시인 기념문학관 개관

중앙일보 사우회보 8월호에서 27년도 재직 중 쓰러진 고 기형도 시인의 기념문학관이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형도 문화공원 안에 내년 5월 오픈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생전에는 기자로서 열심히 일했으나 시인으로서의 사후에 더욱 빛난 기형도 회우의 기념관은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에 유품과 작품 등 모든 자료를 전시하게 된다.

고 장기봉 사주 7주기 추모식

신아일보 신아일보 사우회(회장 윤구)는 지난 26일 중구 서소문동 소재 신아빌딩 고 장기봉 사주 흉상 앞에서 타계 7주년을 기리는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금규 정운종 고문, 윤구 회장 등 사우회 회우와 장학준 유족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주소 변경 ▶

조덕동 = 서울 서초구 잠원로 8길 35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103-2101
박기병 =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6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아파트 104동 1404호
이덕주 = 우) 06276,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1 101동 207호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강승훈 = 서울 구로구 오류동 370 삼천리아파트 101동 304호
이병훈 = 우) 13013,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화로 270, 위례그린파크 푸르지오 6511동 1703호
신성순 = 서울 서초구 효령로67길 20 서초동 풍림아파트 101동 202호

▶ 회우 경조사 ◀

결혼
김용발(메디팜 인터넷신문 대표)회우 = 외아들 현중군 9월 24일 낮 1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결혼.

입회비·연회비 내주신 분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2016. 7.23 ~ 8.20)

입회비·연회비 : 장재열
연회비 : 송호창(16)
찬조금 : 이민희 5만원

월간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李炳大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李享淑
- 주필 林鍾乾
- 편집위원장 朴錫興
- 편집국장 崔命宇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 (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지역서점 포털사이트

지역서점이
뭉쳤습니다!



가까운 서점으로 GO! GO!

- 전국 서점 명단,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를 한번에~
- 내 주변 서점의 실시간 재고 현황, 지역서점의 행사, 이벤트 정보



도서정보가 한 눈에~

- 도서 검색은 기본, 중소출판사의 신간 정보까지
- 지역서점만의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분야별 베스트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간의 의견교환이나 도서정보 교류
- 스크랩기능으로 내게 맞는 도서정보나 행사 이벤트 정보 조회
- 저자와의 대화 코너를 통해 저자와의 생각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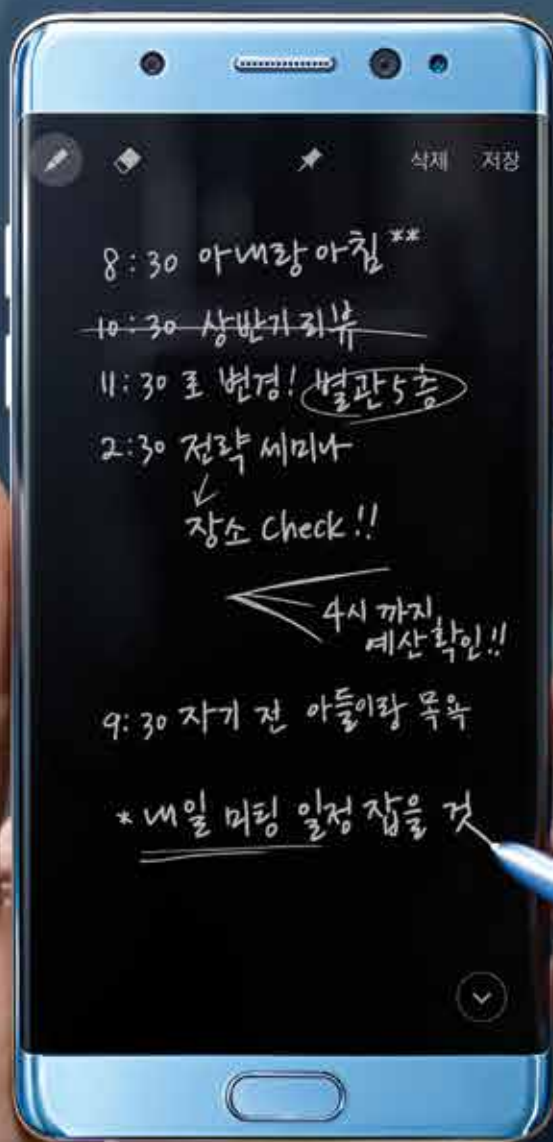


지역서점 활성화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SAMSUNG

급한 메모도 자유롭게
꺼진 화면에서 남다르게



| 중요한 메모는 항상 띄워 놓고 사용하는 꺼진 화면 메모&고정 |



자 유 롭 게 남 다 르 게
Galaxy Note7